

거리두기 5단계로...백화점도 마스크 필수 2

SK그룹, 전력 100% 재생에너지서 얻는다 13

코스피(30일 전주 대비) 2267.15 (-03.66P)  
코스닥 792.65 (-15.33P)  
환율(달러당 원화) 1135.10 (+2.2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35% (+0.025%p)

## ‘날개’ 꺾인 파일럿, 대형버스 면허 따다

기장 등 항공 종사자 ‘투잡’ 급증  
실직 위기에 비상 생계수단 강구  
정부 지원 끝나면 퇴사 늘어날 듯

대형 항공사 기장 김(40대) 씨는 최근 휴직 기간 대형버스 면허를 따다. 항공사에 영영 되돌아가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지만, 상황을 보면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항공 종사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조차 기내승무원 무급휴직을 시작한 지 만 4개월이 지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황이 언제 되살아날지 불투명해 지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이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항공업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는 직장을 떠나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등 연이은 악재로 항공업계를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공항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항공운송업 상용근로자는 2만2675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월(3만3140명)과 비교했을 때 32% 줄었다.

항공 종사자 수는 앞으로 더욱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의 직원 615명은 9월 정리하고 통보를 받았다. 순환 휴직 중인 다른 항공사들의 직원도 생계를 위해 업계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유튜브

에는 승무원 퇴사 브이로그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에 근무 중인 20대 승무원 A 씨는 “아직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직을 위해 독서실에 다니고 있다”며 “항공사에 입사할 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면서 퇴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무급 휴직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항공사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직 휴업수당의 60~75%를 지원했다. 하지만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1년에

180일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난달을 포함해 240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이달부터 지원금이 끊긴다. 이달부터 급여통장에 이체되는 돈이 더는 없으니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진짜 보릿고개가 시작된 셈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靑일자리수석 임서정  
식약처장 김강립

차관급 12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9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철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경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등 정통 관료들이 주로 승진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병근 기자 sbg1219@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 패션마켓 2 10.30 - 11.3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일 개막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1633개 업체가 참여해 15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코세페 행사 첫날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영업전략 재편에 생존 걸렸다” TF 꾸린 손보사

## 옵티머스, 환매중단 직전 수백억 인출

금감원 검사 전후 '수상한 흐름'...셀틸리언 투자사에 50억 송금도

### 스페셜 리포트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전통 판매 채널인 대면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업 전략에 혁신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요직에 테스크포스(TF)를 배치하거나, 아예 최고 경영자(CEO) 직속으로 별도의 전략팀을 신설해 운영에 나선 곳도 있다. 핵심은 '효율성 강화'다. 코로나19로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자 변화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모두가 고사(枯死)할 것이라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관련기사 5면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하반기 들어 채널전략 재정비를 위한 TF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9월, CEO직할 "TM TF"를 신설했다. TM채널 구조혁신 방안 및 채널 손익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B손해보험도 전사TF를 가동 중이다. CFO와 경영관리팀장이 총괄했으며, 보험 대리점(GA)시장 내 경쟁력을 점검하는 취지다. GA시장 내 보종별 매출, 수익성 및 조직 인력 등을 종합 분석했다. DB손보는 GA시장별 및 현장 업무지원 인력 열

#### 주요 손해보험사 TF 운영 현황

- 현대해상** TF명 : 채널전략추진TF
  - 내용: 기획관리부문 산하에 신설, 자회사형GA 설립 타당성 검토
  - 시기: 10월 1일~
- DB손해보험** TF명 : 전사TF
  - 내용: GA시장 내 경쟁력 점검
  - 시기: 7월 27일~ 9월 4일
- 메리츠화재** TF명 : TM TF
  - 내용: CEO직할, TM채널 구조혁신 방안 및 채널 손익 개선방안 검토
  - 시기: 9월~연말

#### 코로나로 전통 대면영업방식 제동 메리츠·DB·현대해상 조직 신설 보험영업 차별화 등 효율성 강화 노려

위에 따른 경쟁사 대비 지점장 업무량 과다를 자체적인 주요 개선 포인트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10월 1일 자로 기획관리부문 산하에 채널전략추진TF를 신설했다. 이 TF는 현대해상의 중·장기 경영 전략인 '비전 하이(Hi) 2025' 수립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대해상은 TF에서 2021년 4월, 판

매자회사(자회사형GA) 론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획관리부문은 경영기획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신설TF가 추가된 것이다. 인력은 총 5명으로 편제됐다. 자회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직이관 규모 및 설립을 준비 중이다. 저능률계사이관 등 구체적인 조직 이관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TF를 신설하는 건 GA와 다이렉트(PC·스마트폰) 등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로 업체마다 차별화된 영업전략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어느 채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극명하게 갈렸다. GA와 TM채널에 집중해 단기간 내 수익을 끌어올린 메리츠화재가 단적인 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고착화해 있는 생보업계와 달리 중소형사(發) 판도 변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며 “중장기적 채널전략을 도출한 후 점검해 보는 역할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곽진선 기자 jinsan@

#### 검찰, 비자금 조성 창구 수사 집중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기 직전에 수백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매를 중단한 직후 수십억 원이 한 비상장 IT기업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8면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는 금융감독원의 서면 검사가 시작된 4월부터 6월 17일 판매사에 환매 중단을 통보할 때까지 약 2개월간 5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한 번에 인출한 금액은 금감원 검사를 전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검사 이전까지 펀드 유입 자금을 대부분 '돌려막기'에 썼던 것과도 비교된다.

특히 수표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인출액 2100억 원 중 24%가량이 4~6월에 집중 출금됐다. 이는 펀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수표 세탁을 통해 현금을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사채시장 관계자는 “3개월 정도만 추적이 불가능한(수

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옵티머스가 수표를 집중적으로 인출한 시기에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6월 16일 D사로 50억 원을 송금했다. D사는 김대표 부인과 윤석호 사내이사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 50%씩을 보유한 셀틸리언이 최대주주(지분율 41.43%)로 있는 회사다. 셀틸리언은 지난해 이 회사의 지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옵티머스에서 이 회사로 흘러간 돈은 최소 170억 원으로 추정된다.

D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알비에쿼티파트너스는 이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셀틸리언에 투자를 받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와 D사의 경영진이 일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시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D사 등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영 기자 pgy@

# 모든 시설 마스크 의무화... 위반 땀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방역)로 유지된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영업중단) 조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 격상기준(일평균 확진자 50명 초과 시 2단계)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행된 방역 조치 강도가 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여,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저항이 커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

## 확진자 100명 넘어도 1단계 유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제한적 적용 위험시설 중점·일반으로 재분류

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전국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할 때 2단계로 상향됐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타 권역 확진자 10~30명 이상이 기준이다. 2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계속되거나,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된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 단계다. 각각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800~1000명을 넘거나 더블링(doubling·배증) 등 확진자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가 급증할 때 시행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기준치를 밑돌거나 옷 더러라도 고령(60세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 보조지표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조정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기준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명칭에 따른 낙인효과를, 저위험

시설에는 방역관리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분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플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모든 단계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 백화점 등 기존 중·저위험시설도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된다.

대신 업종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1.5단계에서 방역조치는 단위면적당 인원제한(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1m) 등으로 대체된다. 집합금지는 2단계에서 유흥시설, 2.5단계 이상에선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3단계에선 광범위하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나, 코로나19 국내유입 후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3단계 기준에 해당했던 적은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수도권 40兆 토지보상 본격화... 집값 상승 '불쏘시개' 되나

## 서울 3건·경기 43건·인천 4건 '보상금, 아파트 재투자 가능성'

이달부터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에서 토지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시장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올해 하반기 급등한 뒤 강보합 관망세에 접어든 서울·수도권 집값에 또 한차례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까지 전국 50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정 면적은 총 6786만7913㎡로 서울 여의도 면적(2.9km)의 23배가 넘는다. 50개 사업지구의 토지보

상비용은 총 40조112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말부터 강남권 노른자 땅에서 3건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첫 대상지는 서초구 성원마을 공공주택지구 13만3004㎡ 부지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12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구름마을 도시개발사업(26만6502㎡)과 강동구 일반산업단지(7만8144㎡)의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달 3기 신도시인 계양구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334만9214㎡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3253

㎡)도 이달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계양구 산업단지(24만3294㎡)와 남동구 에코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부지(26만6604㎡)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총 43건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까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5개 지구의 토지보상비용은 30조 원에 달한다. 다음 달에는 남양주 왕숙(1134㎡)의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하남 교산(641만9155㎡)은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내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에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줄줄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과천(155만

5496㎡, 상반기) △부천 대장(343만4660㎡, 8월) △고양 창릉(812만6948㎡, 10월) 등이 꼽힌다.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40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비용이 풀리면서 집값이 한차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는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의 상당 규모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06년 사업지구 131곳의 토지보상금 6조6508억 원의 절반가량(48.9%)인 3조2525억 원은 다시 부동산 투자에 쓰인 바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풀린 보상금 약 30조 원

**11월~내년 수도권 토지보상 사업지구 현황** ※출처: 전국개발정보 지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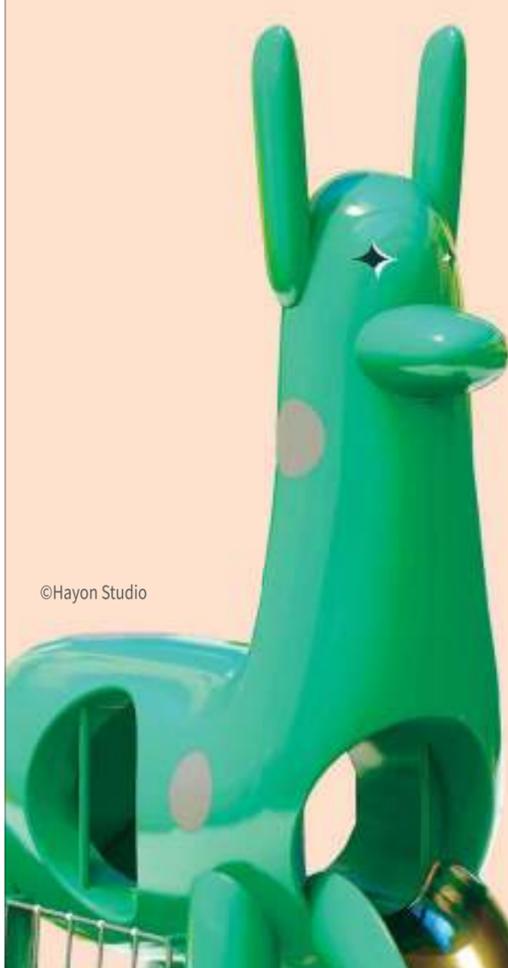
사업지구 50곳 지정면적 6786만7913㎡

보상비 추정액 **40조1125억4700만 원**

주요 사업지구 토지보상 추정액

하남 교산	6조8000억 원
고양 창릉	6조 원 이상
남양주 왕숙	5조8000억 원
부천 대장	1조2700억 원
인천 계양	1조1500억 원

의 37.8%도 부동산을 사는 데 들어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환금성이 좋고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 SPACE 1

2020.11.6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쇼핑에 아트와 체험을 더한  
국내 최초 신개념 갤러리형 아울렛 SPACE1이 남양주에 찾아옵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하이메 아온이 설계한 조각공원, 아웃도어 가든에서 펼쳐지는 액티비티, 문화와 예술로 채워지는 프리미엄 쇼핑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Hayon Studio
h point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한성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다른 항공사 이직 꿈 같은 얘기”...3명 중 1명 실직

조종사 등 직원 1년새 1만명 줄어 해외처럼 수만 명 구조조정 우려 언제 다시 비행기 타게될지 막막

3~4년 전만 하더라도 항공사 직원들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해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봉도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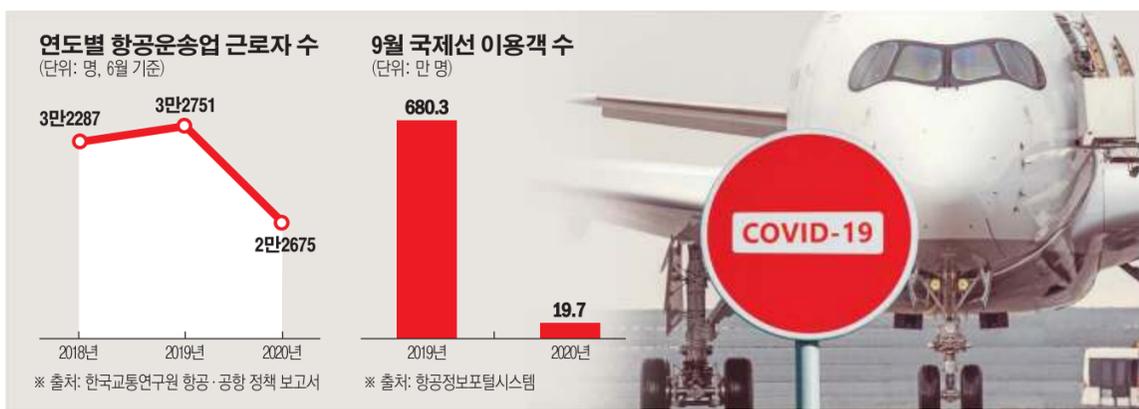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들은 ‘연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황이 언제 반등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기 때문이다.

항공 종사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애써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다.

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들은 먹고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부사장 B 씨는 “휴직 기간 택배 일을 한 적이 있다”며 “파일럿이 되기 위해 몇억 원을 가까이 쓰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닥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종의 부업을 뛰는 건 사내 규정상 위반이다. 그러나 또 다른 LCC 직원인 C 씨는 “생계를 위해 뭐든



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지인 카페에서 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30대 조종사 D 씨는 “최근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며 “주위의 시선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력서에 일절 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은 경력을 살려 다른 항공사에 가면 안 되냐고 말한다”며 “하지만 다른 항공사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경력 공채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언제 다시 비행기 조종사로 되돌아갈지 막막하다”고 덧붙혔다.

항공 종사자들은 하루빨리 예년처럼 일하길 원하지만, 항공업황은 좀처럼 회복

되지 않고 있다. 올해 중순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하늘길 빛장을 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국제선 재개가 여행 수요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9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19만6791명으로, 전년 동기(680만3109명) 대비 97% 줄었다.

일부 조종사, 승무원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공업계를 떠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공항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항공운송업 상용근로자 수는 2만2675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3만2751명)보다 1만명 이상 감소했다.

항공사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지난달 종료된 만큼 퇴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형 항공사에 근무 중인 최(40대) 씨는 “아직 퇴사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항공 종사자들은 혹시 대량 구조조정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재정 위기로 일찌감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행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9월 항공기 정규직 조종사 11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6월 조종사 해고 규모(6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아메리칸항공은 지난달 전체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1만9000명을 감원했다.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직원 6000명 감원예나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등 여러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선 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적 회복도 어려운 만큼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주혜 기자 winjh@

## “2023년까지 여객 수요 회복 어려워”

IATA 등 ‘비관적 전망’ 대세 저비용항공사까지 화물 집중 국내, 완만한 ‘U자’ 회복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의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휴직 중인 항공업 종사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에드 배스천 미국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공 수요가 정상화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커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CEO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항공업이 적어도 앞으로 12~15개월은 힘들 것”이라며 “비즈니스 항공 여행 수요는 내년 말이나 2022년 초에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지만 향후 4년간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승객들이 언제쯤 항공 여행을 안전하게 여길지 내년 봄 무렵에는 조금 명확해지길 바란다”며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항공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은 여행 수요 반등 시점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 수요가 2024년이나 돼야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항공업스펙셜리포트에서 2023년 이후 항공 수요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수준

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신평은 백신 공급 등을 통해 2021년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하고, 여행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여행제한이 해제되며 2023년 중 국가 간 여행이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행 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을 고려할 때 상용수요 등을 포함한 전체 항공 수요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더욱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소영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국제선 의존도가 높아 IATA의 글로벌 항공 수요 예측 대비 다소 평평한 U자형의 회복 그래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나온다. 에미레이트항공의 팀 클룩 사장은 “나는 ‘뉴노멀’을 믿지 않는다”면서 “수요는 갑자기 회복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사들은 생존을 위해 기존에 없었던 상품을 선보이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가 화물 운송에 뛰어들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 태국 방콕 노선 여객기 좌석에 화물을 탑재했다. 도착지 없는 여행 상품도 잇달아 출시됐다.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방역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비행기 여행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다.

항공사 관계자는 “도착지 없는 비행 상품이 확대되면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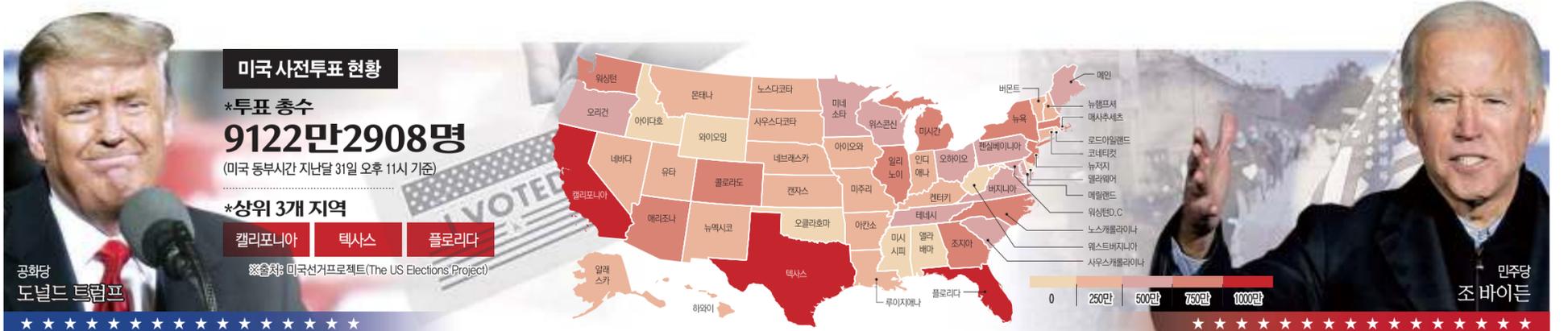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섬목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미국 사전투표 현황

\*투표 총수  
**9122만2908명**  
 (미국 동부시간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기준)

\*상위 3개 지역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출처: 미국선거프로젝트(The US Elections Project)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조 바이든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유권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왼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몽트루빌에서 열린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 경합주에 ‘멜라니아·오바마’ 출격... 막판 지원사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들 방문, 막판 표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차례나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후보 역시 강력한 우군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또 다른 주요 경합주인 중북부의 미시간주를 누비며 표집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무려 4곳을 누비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 소재로 삼아 맹공을 펼쳤다. 그는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천연가스의 채굴이 금지되며, 펜실베이니아주는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나는 에너지 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대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석유산업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동북부 마셜러스 셰일기대에 걸쳐 있어 셰일산업 의존도가 높는데, 바로 이 점을 부각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대규모 집회 “세일 수호” 러스트벨트 지지 호소 멜라니아 “민주당 정치 부패” 맹공

락이다. 그동안 유세 현장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남편의 재선을 위한 막판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위스콘신주 웨스트벤드를 찾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실재 없이 일했지만, 민주당은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런 이기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결정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물 정치인들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미국인을 구했다”고 발표해 관중의 환호를 끌어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주요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첫 동반 유세를 진행했다. 바이든 후보의 든든한 후원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펜실베이니아 단독 유세를 통해 바이든 후보의 측면 지원에 나선 데 이어, 24일과

27일 플로리다에서 잇따른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후 나흘 만인 이날 다시 바이든 후보와 함께 나타나 막판 화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세몰이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강조하는가 하면, “그는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 이상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에도, 자신과 친구 이외의 누군가를 돕고 일을 하는 데에도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나머지 사람들이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오바마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바이든 후

바이든, 오바마와 동반유세 펼쳐 “美 일자리·안전·건보 위기 처해” “코로나 대응실패” 굳히기 총력

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 안전, 건강보험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깊은 수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진전을 할 기회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과 분노, 증오, 실패, 무책임을 끝내겠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선과 함께 치르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찾은 곳은 모두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핵심

경합주다.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 지역’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 플로리다가 걸린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펜실베이니아(20명)와 미시간(16명)주가 선거인단이 많다.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에서 각각 0.7%포인트와 0.23%포인트 격차의 근소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지만,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 당락 좌우할 ‘우편투표’

# 현장개표 끝나도 모를 美대통령 선거결과 지연 땐 ‘퍼펙트 스톰’

### 폭력사태 불안감 총기판매 늘어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두 후보의 유세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우편투표 지연과 폭력사태 불안 등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선거 후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가 확산하며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대학 ‘미국선거프로젝트(US Elections Project)’의 조사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9122만29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43%에 달하는 숫자다.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 수는 1억3650만 명이었는데, 이번엔 사전투표만으로 이미 4년 전 대선 총 투표자 수의 66%가량을 채웠다.

문제는 선거날(3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 당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중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60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 중 3300만 표 이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전날 기준 주요 경합주 13곳에서 우편투표 700만 표 이상이 아직 당국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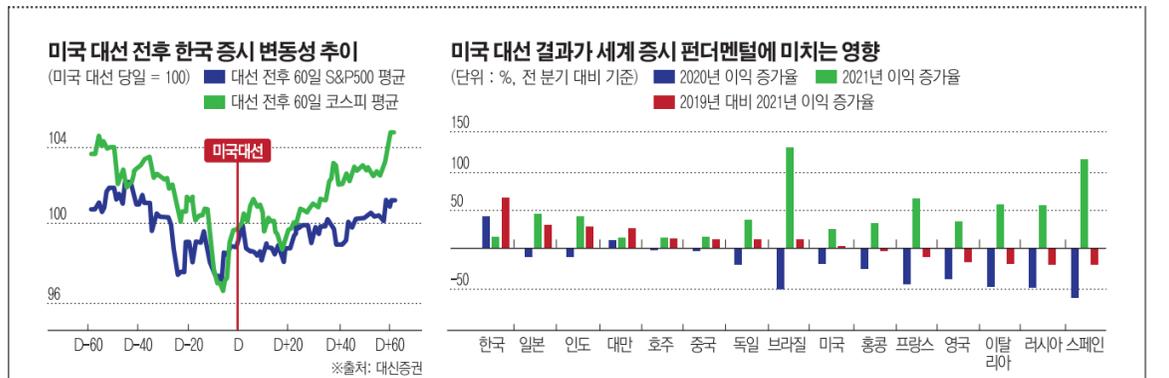
중에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최대 격전지가 포함돼 있다. 13개 주의 우편투표 수가 2400만 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28%가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것이다.

제때 배달되지 않아 집계에서 빠지는 표가 생기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 대선 때 미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 차가 1만704표에 불과했다. 전날까지 미시간에서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70만 표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만약 이날 3일까지 당국에 도착하지 않으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표와 집계 지연이면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져 결국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당일 현장투표 결과와 우편투표가 포함된 최종 개표 결과가 다르다면 패자가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 왔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내지 않은 터라 선거가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맺을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극성 지지자들의 대립으로 미국 사회가 현재 극도로 분열된 와중에 개표 결과 발표마저 지연되면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혜림 기자 rog@



<공화당 승리 착시 현상>

# ‘레드 미라지’ 우려... 韓증시 ‘어수선’

바이든 당선엔 ‘안도렐리’·트럼프 당선엔 ‘변동장세’... 금융시장 촉각

올 한 해 글로벌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증권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안도렐리가 펼쳐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지 않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9000만 명을 넘어선 사전투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만으로 승리를 선언한 뒤 ‘레드 미라지’(붉은 신기루: 공화당 승리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혼란이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1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오는 3일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투표 종료 시각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현장 투표보다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9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1억3884만명)의 66%가 투표를 마친 셈이다.

문제는 3일 대선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경합주가 7개에 달하고 이들 지역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20%인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 최장 10일가량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거 당일 승패를 알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 후 우편투표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 결국 소송이 벌어져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움증권 김유미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지 못할 때 대선 불복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가격변수들도 관망하거나 위험회피성향에 기댄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험에서도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미치는 악영향은 뚜렷하다. 2000년 미국 대선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앨고어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결국 부시가 당선된 때다. 월평균 변동성 지수(VIX)가 다른 대선 때 달리 연말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빼면 유일하게 연말 주가가 낮았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반동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 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증시 충격이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이고, 경기회복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감세, IT 기업규제 부담 완화로 미국 경제성장 기조와 주식 시장 강세 동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 속에 IT 주도의 상승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중국 IT 기업 제재는 한국 IT기업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될 경우 증세, IT기업규제 강화 부담은 상당기간 동안 미국에 국한된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미국 성장을 저해하며 달러 약세 속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미 대선이 끝나면 경기부양책 등 그동안 증시를 압박 잡았던 재료들이 소멸되고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승인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장 강하다고 봤을 때 10월 하락이 ‘방향성의 되돌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보험대리점>

<텔레마케팅>

# '카멜레온' 처럼... GA 합치고·TM 바꾸며 '무한변신'

## 위기의 손보사 '新생존전략'

손해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찾으려는 공통의 목표는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강화'다. DB손해보험은 TF에서 보험대리점(GA) 지점별로 지점장에 대한 '업무량 과다'를 주요 개선 포인트로 삼았다. 지점이 너무 커서 부가업무가 가중되면 지점장이 핵심업무를 되레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 것이다.

◇DB, 대형지점 분산·통합GA 검토 = 우선 서울이나 여의도 등에 집중된 대형지점은 나누고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지점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점별 생산성 지표는 기반으로 효율적인 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신규 점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대형지점을 분할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선 효율적이다. 신설점포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점장의 역량을 '성장형'과 '안정형'으로 분류해 점포를 분리운영하는 내용도 TF에서 논의됐다. 가령 성장형 점포는 성과가 높은 지점장을 배치해 '보장성 보험'의 판매량을 늘리는 등의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정형 점포의 경우는 경력이 높은 지점장을 통해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 등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게 된다.

이밖에 회사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통합 GA'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개인사업, 법인사업, 신사업부문 등으로 GA의 소속이 각자 달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합은 영으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자는 수도권·강원권 등으로 GA를 일부 돌리고 신사업부문은 텔레마케팅(TM)형 GA로이 관하게 된다. 다만 일반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법

## DB, 성장·안전형 점포 분리 운영 메리츠, 홈쇼핑 생방송 철수 가다 현대해상, 설계사모집 수수료 제한

인사업은 1인 GA 중심으로 소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GA를 분별별로 따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통합GA를 검토하지는 안이 나왔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GA 관리에 차이가 발생해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메리츠, TM채널 손익 '재정비' = 최근 3년간 고속성장의 일환으로 TM채널을 강화했던 메리츠화재는 TF를 통해 TM 채널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까지 이례적으로 TM 채널 확대에 공을 들여 설계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했다. 삼성화재를 확실하게 앞서기 위해서는 전 판매 채널에서 선두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덕분에 TM 채널 수입보험료가 지난해 1분기 84억6300만 원에서 1년 만에 1222억9300만 원으로 14배 넘게 뛰기도 했다.

하지만 광고비 지속 상승에 따라 채널 비용이 급증했고, 손익이 악화하는 역

효과도 있었다. 올 상반기 메리츠화재의 TM채널 손익은 12억8000만 원으로 2019년 하반기(22억2000만 원)와 비교해 사실상 절반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또한 60.1%에서 34.6%로 급감했다. 2017년 상반기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손익과 시장점유율이 올해 들어서 꺾인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수수료가 높고 모랄해저드성 DB가 많은 홈쇼핑 생방송 모델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가입 목적이 아닌 홈쇼핑 사은품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DB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메리츠화재는 상대적으로 DB비용이 저렴한 DRA(케이블 티비)채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 경우 DB 대량 구입형 모델이다. 현월 5000만 원 수준인데, 2배 가량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대해상, 자회사형 GA 설립 추진 = 현대해상은 올해 '비전 하이(Hi) 2025' 전략을 수립하면서 만들어진 채널전략 TF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판매자회사(자회사형GA)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도입을 앞두고 자회사형GA 활용안을 엮고 있다.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GA로 고능률 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능률설계사를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고능률 설계사들을 전속 채널에서 활용하고 저능률 설계사를 자회사 GA로 내보내면 비용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200%룰'로 불리는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업계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제한이 보다 느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곽진산 기자 jinsan@



- DB손해보험 채널 전략**
- 1 대형지점 분할, 성장지역 지점 신설
  - 2 성장형·안정형 점포 분리 운영
  - 3 GA통합 운영
- 메리츠화재 TM채널 개선**
- 1 홈쇼핑 생방송 모델 철수
  - 2 DRA 채널 도입
  - 3 재택근무 TM설계사 모집

## 디지털 전환... '보험왕'도 변해야 산다

### 비대면 판매채널 재편 가속도

국내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보험산업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채로워지면서 보험사도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 채널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과제'에서 보험사는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선호 소통방식에 맞춘 채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대부분 사람은 비대면 채널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보험사는 여전히 비대면 채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시장을 제외한 손해·생명보험사는 비대면 채널 보험료 구성비가 10% 안팎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향후 생보 채널별 선호에서 대면 채널은 여전히 높았지만, 20·30대의 경우 CM(사이버마케팅)채널 등 직판채널을 선호한다는 비중이 각각 28.1%와 21.0%로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채널 방식 변화에 대한 요구속

도가 좀 더 빨라졌을 뿐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저성장·저금리의 지속, 인구 고령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은 전통적인 채널·전통적인 상품 구조로는 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라며 "빅테크, 핀테크 플레이어가 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시장의 경쟁 구도는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 최근 TF를 구성해 판매 채널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 영향이다.

과거의 보험산업은 우상향하는 성장률과 금리 곡선에 의존하는 영향이 컸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이나 채널 전략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보험연구원이 '탈성장 사회'를 지적하며 개별 보험사의 성장은 더 강력한 경쟁과 혁신 요구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이유다.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에 기초한 사업 모형과 규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환경에 대한 판매 채널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소비자 신뢰의 제고도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곽진산 기자 jinsan@

**나무에서 미국주식 산다고요?**

**거래수수료 딱 0.09%만 내세요!**

**+ 환전우대 100% 추가혜택**

(2021년 3월 31일까지)

\* USD 환전 시(NH투자증권 고시 환율 기준) :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0% / 매도기준환율 + 스프레드 0%

\* 대상국가 : 미국(USD), 중국(CNY), 홍콩(HKD), 일본(JPY)

<b>적용 매체</b>	나무 온라인 매체 (앱, HTS, 홈페이지)
<b>기간</b>	2020.09.14 ~ 2021.03.31
<b>대상</b>	1. 이벤트 기간 중 나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2. 나무 계좌 보유 고객 중 2020년 기준 해외주식 미거래 고객 (단, 2020년 기준 영업점 거래 계좌 보유 고객 제외)

※ (해외)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이벤트 혜택이 대상이 아닐 경우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기준, 국가별 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환자산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최소 수수료 미국/중국/홍콩/일본은 없으며, 영국(GBP10), 독일(EUR10), 호주(AUD10), 베트남(VND 600,000), 인도네시아(IDR 350,000)입니다.  
※ 이벤트 대상고객의 수수료 매대 서비스의 수수료매대결제금의 경우에도 100% 환전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달러(USD) 매수 시 환전 우대 예시  
- 이벤트 대상: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0% 적용(100% 환전 우대)  
- 이벤트 미대상: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1% 적용(단, 고객 등급별 또는 환전금액별 우대를 추가 적용)  
\* 환전 시 최종 우대를 확인 가능  
\* 매수기준환율은 HTS 환율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NH투자증권 고시 환율임  
※ 고객등급별, 환전금액별 환전우대율을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공지/새소식/환율우대정책 변경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4556호(2020-10-05-2021-10-04)

# 전문가 “유리한 지표로 공모가 산정, 정당성 잃어”

## ‘공모가’ 희망과 절망 사이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밝혀주세요’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올린 글이다.

이 작성자는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문 제점을 알고도 공모 가격이 부풀려졌고, 팬 들은 단순히 회사와 언론을 믿고 이를 만에 투자 금액의 절반을 잃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빅히트의 공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따상상(공모가 2배+2거래일 연속 상한가)’을 기대했던 빅히트 주가가 공모가 (13만 5000원) 가까이 추락하자 증권사 가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지금의 기업공개(IPO)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경매 에 참여, 공모가를 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발행사와 주관사가 최대한 유리한 지표를 조각 맞추기 식으로 산정하 는 공모가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

‘따상상’ 노렸던 빅히트 연일 하락 14만2000원... 공모가마저 위협

전문가들 “산정 제도 보완 필요” 공모 전 핵심 투자자 미리 유치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목소리 ‘한방’ 노린 묻지마 투자도 문제

한다. ‘주가꿈비율(PDR: Price to Dream Ratio)’ 등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모범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석훈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모가 산정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고 판단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잘 활용 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제도 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의 편 드멘탈을 잘 판단할 것이라 문제 △실제로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 △가격 조정 능력 을 어떻게 하는지 문제 △투자를 잘 행거 가는지 △애 기업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



는지에 대한 설득력 등이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자칫 민감한 특징들, 예를 들면 성과나 정성적인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와 증권사 가 내는 가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들여 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 를 도입하지는 주장도 있다. 코너스톤 투 자자 제도는 2007년 홍콩 증시에서 만들 어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증 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상장 공모 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핵심 투자자를 미리 유 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너 스톤 투자자는 확정 공모가로 지분을 인수 하며, 6개월 이상 자진 보호예수를 건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이보미연구위원 은 “전문성이 높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코 너스톤 투자자로 참한다면 공모가격의 신 리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우선 배정과정 에서 투자판단 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적 정 공모가격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만 우대한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코너스톤 투자 자 제도의 핵심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 전 투자자 확보’에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공모’ 행위다. 증 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투자자를 유치하며 청약은 권유한 셈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법 제119조 1항은 ‘모집 또는 매출은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 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투기판으 로 보는 투자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치를 결국 초기 구매자와 투자자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처음에는 다소 고평가되고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공모가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시장에서 작동할 문 제이며 터무니없이 공모가가 산정되진 않 는다”며 “공모 가격이 공개돼 있으므로 (과열됐는지 여부 판단은) 투자자들의 책 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김하늬 기자 honey@

## “기업의 꿈도 가치 측정”... PDR, 증권가 대세로 자리잡나

〈Price to Dream Ratio: 주가꿈비율〉

‘833년.’ 시가총액이 3931억 달러(약 445조 원)인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이 회사의 순이익(지난해 기준)을 모아 사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주식 투자 를 처음 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도 한 번쯤 들어보직한 ‘주가수익비율 (PER)’이 833배라는 뜻이다. 사서는 안될 초고평가 주식이다.

테슬라뿐 아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넵사백’ 수준의 고평가 상태다. 적어도 전통적인 지표를 근거로 할 때다. 증권가에서는 누구도 명확한 대 답을 내놓지 못했다. 주가가 언제까지,

재무지표 넘어 투자자들의 꿈·미래가치 등으로 가치 측정 비상장 회사 가치 평가하는 M&A·IPO 시장서 활용 가능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사실상 기존의 평가지표인 PER 과 PBR(주가순자산비율)로는 더는 주 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 도 이 때문이다.

PER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전 통적인 재무 지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 업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가치 평가 대안을 찾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PDR(Price to Dream Ratio)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주가 가치를 측정할때 단순히 기업의 순이익, 순자산 등 재무지표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꿈, 미 래가치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정의한 PDR은 기업가 치(시가총액)를 기업의 꿈으로 나눈 값 이다. 기업의 꿈은 해당 산업의 10년 후

$$PDR = \frac{\text{기업가치(시가총액)}}{TAM \times \text{시장점유율}}$$

※ TAM: 해당 기업이 포함된 전체 시장 규모

전체 시장 규모(TAM·Total Addressable Market)에 기업의 예상 시장 점유율을 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PDR 지표가 다른 지표 보다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상장 후 10년간 주가 추 이를 또 다른 성장주 가치 지표인 주가매 출비율(PSR)로 보면 2.3~125.6배로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처럼 범위가 넓게 형성되면 가치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지만 PDR로는 0.6~6.9배로 훨씬 좁은 범위로 지표가 형성된다는게 리포트의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성장성은 높아 보이 지만 아직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를 평가 해야 하는 M&A시장과 IPO시장에서 활 용할 수 있다”면서 “PDR 밸류에이션은 기존 방법으로 산정된 공모가의 적정성 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회사는 변한게 없는데 주가만 2~3배 올 라 PER이 수 백배에 달하는 기업의 주 가도 PD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 국면인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 화학으로 이로워지는 세상

롯데화학가족이 함께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더 편한 일상으로  
자연에게는 더 착한 환경으로  
사람과 자연을 모두 이롭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세계 화학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리더십  
전세계 150여개국 수출, 24개 생산기지



업계최초 미국 세입가스 시장 진출  
루이지애나 ECC 준공



기능에 이음다름까지 더한 디자인 소재  
세계 유명 디자인 어워드 석권



자동차 배기 가스를 정화하는  
유룩스

● ● ● 롯데 화학 가족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김해신공항’ 무산이나, 추진이나... 총리실 발표 초읽기

### 이달 중순 적정성 여부 결론 사업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 부적합 땀 동남권 신공항 추진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반발로 지연됐던 김해신공항 사업이 무산될지, 혹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가 총리실 발표에 달렸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0일 전후 결론 날 것으로 알려져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 최종 검증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부·울·경은 검증 결과에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작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지방자치

단체 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사안별 검증 결과만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지속할지 백지화할지 종합적인 판단은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면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은 국토부가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 3.2km는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아서 최소 3.7km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뚝대산과의 충돌 위험을 신설 ‘V’자 활주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해공항 주변의 자연 장애물을 두고서도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은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일부 산지가 OLS를 넘더라도 장애물 평가표면(OAS)을 저촉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3.2km

활주로도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산정했으므로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 논리가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다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다고 해도 가덕도 신공항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정 시 동남권 신공항은 다시 수요 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פש '크리스마스 썸' GS25 편의점에서 크리스마스 썸 모음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크리스마스 썸을 건네고 있다. 뉴스시스

## 현정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

### “내수·투자·교역 전반적 개선”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며 이같이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재발할 우려가 작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2021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내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더불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고용 안정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발생,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예비적 저축 증가 가능성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공공인프라, 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힘입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

투자는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세계 경기 반등 기대와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수요 확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기술(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혁신성장 기조 등도 설비투자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석유화합 및 철강 등 기타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투자 제약,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기 개선 및 저저효과로 올해 대비 반등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수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갈등을 비롯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 부문에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 10월 수출 3.6% 줄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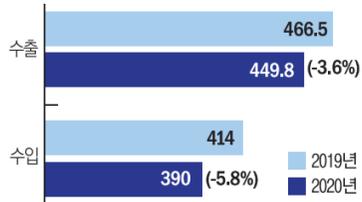
### 정부 “조업 일수 감소 영향”... 일평균 수출 5.6% 증가, 2년새 최고

9월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며 회복 기대감을 높였던 수출이 반등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2일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6% 상승해 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449억8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 6월 -10.9%, 7월 -7.0%, 8월 -9.9%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7.6%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지만 반등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입 실적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달러, 통관 기준, 잠정치)



수출 감소의 원인은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부족한 영향이 컸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증감률은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양호한 수치이자 작년 이후 조업일수가 동일하거나 부족한 13개월 중에선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일평균 수출 증감률은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4000만 달러로 13개월 만에 21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총 수출액은 449억8000만 달러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일평균으로는 2018년 8월 이후 최다인 8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3.3%)과 유럽연합(EU·9.5%)이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5.7%)과 아세안(-5.8%)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10월 수입은 3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9억8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s13@

## 현대중 또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공정위, 제재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1년간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해온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선주 P사는 현대중공업에 대형 선박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B사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현대중공업은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행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들에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요구서면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5월 공정위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올해 7월에는 하도급업체의 피스톤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넘긴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대주주 3억 기준’ 당정 입장차 여전

### 여당 “혼란 예상, 2년 유예”

### 정부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대주주)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에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특정 종목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 차익의 22~33%를 양도세(지방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기재부는 애초 가족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 사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은 어려우며, 과세 대상이 1.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양도 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시행령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3억 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 그동안 10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주주 요건의 ‘10억~3억 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22만 명이 상 동의한 상태다.

이와중에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화해 통해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예산전쟁 돌입... 與 “위기극복” vs 野 “뉴딜 50% 삭감”

### ‘556조 슈퍼예산’ 공방 예고 與 “법정 시한 내 처리할 것” 野 “100대 문제사업 선정·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의 기조가 정반대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특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은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거나,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역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디지털 격차 해소 △첨단도로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 원을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도 발표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내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정통관료 대거 발탁... 임기 말 국정 돌파 의지

### 코로나·부동산·일자리 차관급 교체... 개각 전 전열정비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단행한 12명의 차관급 인사에서 정통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발탁한 것은 임기 말 공직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의 담당 부처에 인적교체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우선 전제남 등 부동산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일했던 윤성원 전 비서관을 발탁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임시정)과 고용노동부 차관(박화진)도 동시에 바꿨다. 코

로나19 사태 여파로 줄어든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았던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한 것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국정동력 전체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담당하는 곳에 해당 부처의 전문가를 투입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출신의 대거 발탁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윤성원 선임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통상비서관을 거친 박진규 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역임한 도규상 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모두 청와대 출신이다. 청

와대와 부처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차관급 대폭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제 관심사는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12월 초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일부 부처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병근 기자 sbg1219@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손바닥 뒤집기’ 물결치 공천 규탄 긴급 기자회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 野 “문 대통령, 당헌 개정 동의하나”

###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추진 김종인 “국민과의 약속 깨는 것”

국민의힘은 1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에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동의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공천 규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보궐선거는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임에도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천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지금이라도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29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며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개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 PART2. 앞뽕달뽕 환경용어카운트로 보는 환경 이슈
-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재대로 해아 재대로 지구를 살린다
-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외 미학
-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앞면 경제가 보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로 미래 양친구를 공군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친구성장 해법

“저게 70억 인구 중 자란 유일한 후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허미인 남자 조동성 이사장의 브라보타임

니조차도 감동 못할 거야,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성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름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산도담캠핑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이 현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입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는 실의와 병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뭐야? 편선 사업이 빅 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기억’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잠 알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명사·명작 돌아보기**  
알고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파리 그림이 질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아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뼘

자투리 천도 총총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화웨이,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美 제재에 공급망 끊기자 활로 모색  
5G 통신장비 반도체 자급자족 목적  
中 정부 후원 ICR&D센터가 운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중국 통신 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가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도 핵심 사업인 통신 인프라 부문을 위한 주요 부품 공급을 확보하고자 중국 상하이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전용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화웨이의 파트너이자 상하이 시정부 후원을 받는 '상하이 집적회로연구·개발(IC R&D) 센터'가 새 공장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제조 경험이 없는 화웨이가 장기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화



웨이는 현재 반도체 설계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전담하고 생산은 대만 TSMC 등에 맡겨 온 상태다. 이제 생산도 직접 맡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하면 해외 업체라도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강도 제재안이 9월 15일부터 발효됐다.

이미 화웨이는 상기 제재안 발효 전부터 트럼프 정부의 강한 압박에 성장세가 꺾인 상태다. 화웨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2173억 위안

(약 37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매출 증가율은 9.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4%에서 크게 후퇴했다.

올해 2분기 기록했던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라는 영광도 3개월 전하로 끝났다. 미국의 제재에 따른 생산 차질에 지난 3분기에 1위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준 것이다.

결국 화웨이는 미국 제재를 전면적으로 피할 장기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지난해부터 축적했던 반도체 재고가 동이 나면 상하이 신공장이 새로운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반도체 제조시설은 저가형의 45nm(나노미터·10억 분의 1m) 칩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45나노 칩은 이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15년 전부터 생산해왔다. 그러나 화웨이는 자사 전용 반도체 생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 말에는 좀 더 진전된 28나노 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칩은 스마트TV와 기타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많이 쓰인다. 다음 계획은 2022년 말까지 20나노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해당 칩은 화웨이 5G 통신장비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핵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새 제조시설이 스마트폰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은 좀 더 첨단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계획이 성공하면 통신장비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화웨이가 이 부문에서 쌓은 재고는 2년분의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던킨·배라 13조에 인수 인스파이어, 美 2위 레스토랑 체인 부상

인스파이어브랜드가던킨도너츠와배스킨라빈스를 손에 넣으면서 단숨에 맥도날드에 이어 미국 2위 레스토랑 체인으로 부상했다.

인스파이어는 던킨과 배스킨 등을 거느린 던킨브랜즈그룹을 주당 106.50달러, 총 88억 달러(약 10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부채를 포함하면 인수 규모는 최소 113억 달러(약 13조)에 달해 2014년 버거킹을 소유한 레스토랑브랜즈인터내셔널의 133억 달러 규모 캐나다 커피·도넛 체인 팀호트 인수에 이어 북미 레스토랑 업계에서 10년 만에 두 번째로 큰 인수·합병(M&A)이다. 또 인스파이어는 매출 기준으로 맥도날드에 이은 미국 2위 레스토랑 체인이 된다. 인스파이어는 연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로크캐피탈이 소유한 인스파이어는 이미 패스트푸드 체인 아비스와 바벌로와일드윙스, 지미존스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만1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이번 던킨 인수로 인스파이어 매장 수는 약 3만2000개로, 세 배 가까이 늘게 된다.

연간 매출은 270억 달러, 본사와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수는 총 60만 명에 각각 이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외식업계의 뜨거운 M&A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인스파이어에 따르면 양사의 인수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전에 시작됐다. 폴 브라운 인스파이어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으로 던킨의 핵심인 아침식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협상이 일시적으로 난항을 겪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또 던킨의 드라이브-스루 판매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던킨은 올해 2분기 동일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가까이 급감했으나 3분기에는 1%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빠른 회복세와 M&A 기대 등으로 던킨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약 32% 상승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영국, 코로나 급증에 '2차 봉쇄' "잉글랜드 전역 4주 외출제한"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결국 '2차 봉쇄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총리는 이날 예정에 없던 내각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잉글랜드 전역에 4주 동안 외출 제한 등의 봉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슈퍼마켓이나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제

외한 상점과 식당, 술집 등의 영업을 제한된다. 포장판매나 배달은 허용된다. 시민들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의 출퇴근, 통학, 생필품 구매, 운동 등 타당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해외여행도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월에 실시된 1차 봉쇄령과는 달리 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문을 닫지 않는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을 전염병 급증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다른 선택사항은 없다"며 국민에게 협력을 호



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애초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 유지 계획'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계획이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한 채 휴직이나 휴가를 보내면 정부가 월 임금의 80%,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 원)를 부담하는 대책을 말한다.

그동안 전면적 봉쇄령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던 영국이 이러한 고강도 대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견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2만1915명의 신

규 감염자가 보고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또한 약 1만1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의료 체계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크리스 윌리엄스 영국 정부 최고 의료책임자는 "행동하지 않으면 의료 제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각국의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스트리아는 11월 3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비롯한 부분 봉쇄에 돌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전역에는 전날부터 최소 한 달 동안의 봉쇄령이 발령됐으며, 독일에서도 이달 2일부터 말까지 부분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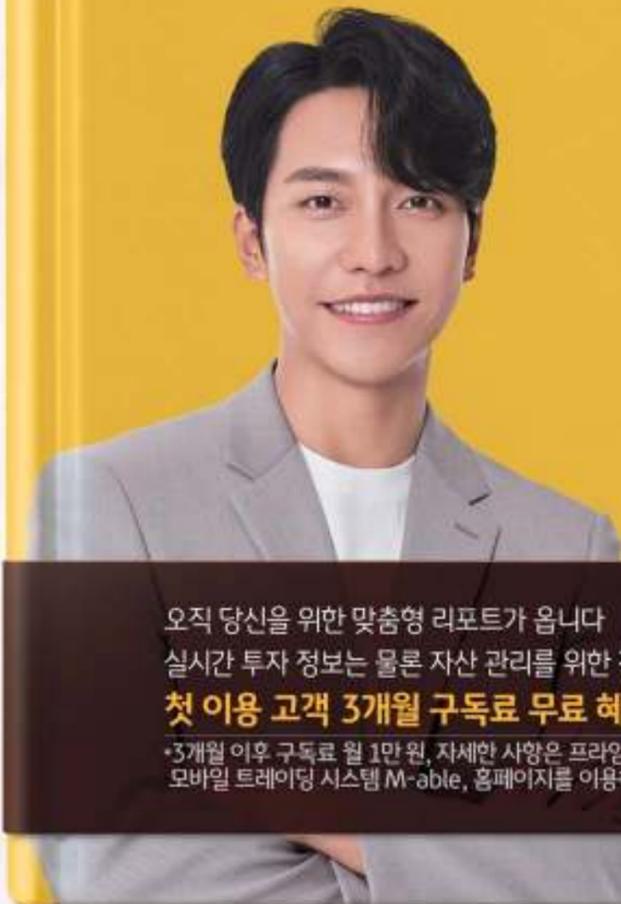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융지주 실적 가른 5은행... 올 '리딩뱅크' 승부처

라임 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 증가  
코로나로 총당금 늘며 은행 수익↓  
증권·기업금융 등 지주 실적 견인

5대 금융지주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사모펀드 사태와 총당금 적립 확대에 은행 실적은 저조했지만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주식 시장 호황으로 증권 등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국내 시중은행 처음으로 분기 기준 1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싸움도 연말까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3분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나란히 1조 원의 순이익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1조1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9403억 원)에 비해 24.1%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순이익도 1조1447억 원을 기록,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하나금융지주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6951억

원) 대비 3.2% 증가한 7601억 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550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966억 원) 보다 38.8% 증가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우리금융지주만 순이익 감소했다.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전년(4860억 원) 보다 1.28% 줄었다.

금융지주 실적은 비은행 부문 수익성이 좌우했다. KB금융에선 KB증권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97억 원으로 전년 동기(585억 원)에 비해 275.8% 급증했다. 신한금융 계열사 중에선 신한카드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4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11억 원 대비 14.4% 증가했다. 신한생명(1713억 원)의 순이익도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하나금융 주요 계열사에선 하나금융투자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2% 늘었다. 하나카드의 경우 1144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9.6% 증가했다. 농협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의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39.6% 늘었다.

반면, 핵심 계열사인 은행 수익성은 모두 뒷걸음질 쳤다. KB국민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6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7016억 원)에 비해 9.4% 줄었다. 신한은행은 81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22.2% 6.4% 감소했다. 우리은행도 전년보다 28.2% 수익이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과 코로나19에 대비해 총당금이 늘면서 은행 수익성이 줄었다"면서 "비은행 부문에서 자본시장과 기업금융, 글로벌 부문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지주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리딩뱅크 타이틀을 두고 벌이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쟁이다. 3분기 기준으로는 KB금융이 신한금융에 219억 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신한금융이 KB금융 보다 723억 원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KB금융은 2017년 신한을 제치고 순이익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2년 연속 신한금융위 1위를 차지하면서 리딩뱅크를 수성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5대 금융지주 순이익**(단위: 원)

회사	3분기 순이익	전년비 증감률	은행 순이익	전년비 증감률
KB금융	1조1666억	24.10%	6356억	-9.40%
신한금융	1조1447억	16.60%	8197억	-11.70%
하나금융	7601억	3.20%	5914억	-22.20%
농협금융	5505억	38.80%	3887억	-6.40%
우리금융	4798억	-1.28%	4807억	-28.20%

## 가계대출 급증세 한풀 꺾였지만... 고삐 안 잡히는 신용대출

전월보다 11% 늘어난 2.3兆  
은행권 대출 속도조절 무색

월	증가액
8월	4조705억
9월	2조1121억
10월	2조3401억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세가 한풀 꺾였지만, 개인 신용대출 증가폭은 줄지 않고 여전히 2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6조1101억 원으로 9월 말(649조8909억 원)보다 6조2192억 원 늘었다. 이는 9월 증가폭(6조5757억 원)과 비교해 5.4% 줄어든 수치다.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8월(8조4098억 원)과 비교하면 26%나 줄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확연히 꺾인 이유는 주택 거래 급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82억 원으로, 8월(4조1606억 원)과 9월(4조4419억 원) 증가폭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매매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월 1만5000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1만640건, 8월 4989건, 9월 3754건으로 매달 수치가 감소했다. 10월에는 2063건에 머물렀다. 김범근 기자 nova@

VOREL®

- 항균·살균
- 피부고민
- 무독성·불순물제거
- 녹제거·염소제거

- 필수·수입상승



### 우리집 수도물 안심 대책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 무독성
- 항균·살균
- 피부고민개선
- 미세물
- 불순물제거
- 녹제거
- 염소제거
- 필수
- 수입상승

**유해물질부터 피부고민까지 해결! 보렐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20%

**2단계 필터시스템으로 불순물 제거**  
친환경 이오나이트 필터가 녹물과 불순물, 잔류염소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부유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

**강력한 수압의 미세 살수**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초강력 수압으로 부드러운 물방울이 만들어져 수압이 낮은 가정에서도 용이하게 사용!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수도배관이 노후된 집에 살고 계신 분
-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분
- 수도세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
- 샤워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분
- 세 집 수도 상태가 걱정이신 분
- 수압이 약해 샤워가 불편하신 분

**모공 속까지 깨끗한 샤워**  
피부 속 잔여 노폐물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 미세하고 부드러운 물 입자가 피부 속 모공까지 깔끔하게 샤워

**30% 절수 효과**  
미세 살수판 효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샤워를 해도 일반 샤워기에 비해 시간당 물의 양이 30%~40% 더 절약!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PACKAGE)**

프라임(고급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2개(필터 미포함), 필터 3개, 향기물 3종류 각 1개, 선용량 충전기  
소비자가격 405,600원 → 84,480원

리서라이팅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2개(필터 미포함), 필터 2개, 향기물 1종류 각 1개, 소비자가격 69,900원 → 55,440원

## 신한銀 '디지털 뱅킹' 일본 수출

###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과 클라우드 뱅킹 계약

신한은행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을 해외 디지털 전문은행에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일본 현지법인 SBJ은행의 자회사 SBJ DNX가 일본 금융 회사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이 설립 준비중인 디지털 전문은행에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SBJ DNX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및 ICT 관련 신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설립된 SBJ은행의 자회사다.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은 설립 준비중인 디지털 전문은행에 SBJ DNX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API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플랫폼과 연계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 키라보시 파이낸셜은 그룹 내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을 위해 신한은행 및 SBJ은행의 혁신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디지털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의 계약 체결은 신한은행의 디지털 및 ICT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전문은행 프로젝트 추진 및 디지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SK, 전력 100% 재생에너지서 얻는다

## 국내 첫 'RE100' 가입 추진 SK(주)·SKT·SKC·SK실트론 등 8개 관계사 2050년 실행 목표 "글로벌 최고 수준 ESG 신뢰 확보"

SK그룹은 SK주식회사·SK텔레콤·SK하이닉스·SKC·SK실트론·SK머티리얼즈·SK브로드밴드·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개 관계사가 'RE100'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한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

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있는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 시작했으며 10월 현재 구글·애플·GM·이케아 등 전 세계 263개 기업이 가입했다.

8개 관계사는 2일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더 클라이밋 그룹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가입을 결정한다.

RE100에 가입하면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는다. 8개사는 앞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법들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한국전력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는 '녹색요금제' 등이 있다.

지분 투자도 주요 방법의 하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시장과 사회로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기업'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강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한발 앞설 것"이라고 기

대했다.

SK E&S, SK에너지, SK가스 등 가입 대상이 아닌 관계사들은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회사 단위 가입 조건에 따라 이번에는 가입은 못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OEM과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를 고려해 RE100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해왔다. 최 회장은 2018년 그룹 CEO 세미나에서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10월 열린 CEO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노력을 모든 관계사가 각자의 사업에 맞게 꾸준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9월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는 친환경 흐름에 한국 기업 또한 본격 참여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에너지 솔루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작은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더뉴 싼타페' 2~3% 할인



현대차 '쏘나타' 3~5%



기아차 'K5' 3~5%



쉐보레 '말리부' 10%



### 아이오닉·말리부 등 최대 10% 저렴...상용차는 20% 할인

**15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정부 주관 쇼핑 관광축제다.

1일 자동차 업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쏘나타, 더뉴 그랜저, 싼타페 등 승용·

RV 주요 차종 약 1만3000대 대상 최대 10%, 카운티, 엑시언트 등 상용 차량 약 650대 대상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 할인율은 △아이오닉 HEV 10% △쏘나타 3~5% △쏘나타 HEV 3% △더뉴 그랜저 2% △투싼 8% △더뉴 싼타페(디젤 모델) 2~3% △코나 EV 5~8% 등이다. 상용 차량도 종류별

로 할인을 제공한다.

기아차도 8개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차종별 할인율은 △모닝 2~4% △K3 3~5% △K5(HEV 포함) 3~5% △K7(HEV 포함) 5~7% △니로 HEV 5~7% △스토틱 7~10% △스포티지 7% △모하비 2~3%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에 동참

하고자 200대 한정으로 △쏘울 EV 2~5% △니로 EV 2~3% 등 전기차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쉐보레는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 고객에게 1500대 한정으로 차량 가격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도 참여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HMM 선박 2척 긴급투입 블랙프라이데이 수출 지원

HMM은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투입한 컨테이너선 'HMM 프레스티지(Prestige)호'와 'HMM 인테그랄(Integral)호'가 총 798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의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서 미국 LA로 출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두 번의 임시선박을 투입한 뒤 세 번째 지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두 척을 투입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국의 소비자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 등으로 수출계약 물량이 늘었지만,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척의 선박에 선적한 화물 중 약 60%는 중견·중소기업의 화물로 채웠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화물이 60%를 넘는다.

미국의 급한 수요에도 1개월 넘게 선적하지 못한 국산 방호복, 보호장구와 손세정제 원료들이 400TEU 넘게 이번 임시선박에 실렸다. 고추장, 된장, 라면 등 식품들이 평소의 3배가 넘는 300TEU의 물량으로 선적됐다. 한 제철기업은 해외 선사와의 사전계약에도 수차례 선적이 지연된 제철화물 30TEU를 이번에 수출할 수 있었다.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부활한 HMM이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적선사와의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수소차 '넥쏘' 누적판매 1만대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의 국내 판매량이 10월 기준 1만 대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출시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넥쏘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판매량이 늘고 있다. 2018년 727대였던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4194대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0월 말까지는 이미 5097대가 팔렸다.

넥쏘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울산, 경기도, 서울 등에서 많이 팔렸다. 넥쏘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울산광역시(17%)다. 울산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수소시범도시 중 하나다. 울산에는 총 5곳의 수소충전소가 있다. 이 밖에 경기도(13.8%)와 서울특별시(13.8%)에서 각각 1000대 이상의 넥쏘가 등록됐다. 고객별로 보면 법인(10.9%)보다 개인(88.3%)이 많았고 40대(28.9%)와 50대(26.2%)가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LG '캐나다 AI포럼' 정례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강국' 캐나다에서 AI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포럼은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의 'AI 포럼 앤 디스커버리 워크숍(AI Forum & Discovery Workshop)'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박일평 사장을 비롯해 LG전자, 캐나다고등연구원(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CIFAR)과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소속의 AI 전문가 16명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는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와 캐나다고등연구원 엘리사 스트롬(Elissa Strome) 박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박 사장은 LG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소개하고 AI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 가치에 대해 공유했다. 스트롬 박사는 캐나다의 최신 AI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2~3일 차에는 LG전자 연구원, 토론토대학교 교수 등 10명이 인공지능 최적화(AI Optimization),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등 각자가 연구한 분야를 심도 있게 공유했다.

송영록 기자 syr@

## 현대모비스, 이달부터 재택근무 제도화

### 거점오피스 운영 검토

현대모비스는 이달부터 재택근무를 공식 인사제도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임시 시행하던 재택근무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차 중심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직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업무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택근무를 회사의 근무제도 중 하나로 도입한 사례가 흔치 않은 데다 직원 수 1만 명이 넘는 국내 제조업 기반 대기업 중에

### 삼성전자 '비스포크' 상업용 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강력한 냉·난방 성능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비스포크(BE-SPOKE)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상업용 제품으로는 처음 비스포크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획일적인 백색 디자인에서 벗어나 '프라임 핑크', '콰이어트 그레이', '세이지 블루' 등 세련된 파스텔톤 색상 3가지 적용해 카페나 식당, 사무실 등 상업 공간에 맞춰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비스포크 상업용 에어컨은 한대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로 사용할

서는 선례를 찾기 힘든 선제적 결정이라고 현대모비스 측은 강조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계획을 사내 시스템에 하루 전에 미리 등록하고 개인 컴퓨터나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통해 사내 PC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상회의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협업툴 등 모든 업무 시스템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2001년 업계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도입했다.

또,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재택근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특히 관리자 직급에



수 있어 경제적이다. 삼성전자는 추후 비스포크 상업용 에어컨의 색상을 확대하고, 내년 초에는 상업 공간 분위기에 맞춰

는 재택근무가 쉬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본사와 연구소 직원뿐 아니라 지방 사업장의 근무자도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재택근무 가능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점오피스 운영도 고려 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직원들이 좋은 컨디션 속에서 업무 몰입도가 상승한 것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며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패널만 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면 패널을 별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엑스레이로 반도체 검사... 원천기술 국산화 앞장

## 강소기업 속으로

### 썬크

엑스레이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을 검사해 품질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이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썬크'다.

이투데이는 10월 29일 '이노비즈 PR데이' 행사를 통해 썬크를 방문했다. 1991년 설립된 썬크는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사장비와 '주사전자현미경' 등 전자빔 기술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48억 원이며, 보유한 특허 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구개발(R&D)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다. 썬크가 R&D에 투자하는 금액은 연평균 41억 원으로 매출 이익 대비 40% 수준이다. 연구 인력도 전체 직원 178명 중 74명으로 전체의 40%다.

썬크는 '이-빔(E-Beam)'이란 원천기

전체 직원 40%가 연구개발 인력  
매출이익 대비 40% R&D 투입  
국내 첫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  
장비·시스템 사업 등 영토 확장

술을 바탕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썬크의 대표적인 제품군은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 △선형가속기 등이다.

대표 제품인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는 방사선을 투사해 반도체 칩,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배터리 등의 미세한 불량을 공정 단계에서 잡아내는 기기다. 반도체 칩에 공기가 대량 주입되는 등 결함이 생긴다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출고 전 엑스레이 검사로 잡아낼 수 있다. 썬크는 국내외 대형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의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관련 기술도 확보했다. 썬크는 '엑스레이 튜브(발생장



김중현 썬크 대표이사 산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앞에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치)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다. 또한 '4-High AXI' 방식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고해상도·초고속·고정밀성을 갖춘 엑스레이 검사장비도 구현할 수 있다.

썬크는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SEM)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EM은 미세 전자빔을 정

해진 영역에 주사해 미세한 형태나 조직, 화학조성, 원소분포 등 물질의 표면 정보를 관찰하는 측정 장비를 말한다.

썬크 관계자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SEM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품을 초경량화하고 가격은 절감해 사용

자 편리성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형가속기 '리나섹(LINASEC)'도 주목받고 있다. 선형가속기는 도수가 높은 엑스레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NDT)다. △컨테이너 보안검색 △방산 △항공엔진 등 다양한 대형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원천기술과 현재 생산 중인 제품군을 바탕으로 썬크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고속 엑스레이 검사장비 등 장비·시스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부품(모듈) 사업과 의료용 기기 분야까지 사업을 키우겠다. 구상도 밝혔다. 엑스레이 검사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CT 엑스레이 튜브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김중현 썬크 대표이사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속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100년 이상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의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 “정부·이통사, 5G 통신분쟁 보상안 마련을”

올들어 '5G분쟁' 조정 122건  
81건 조정 완료, 41건 진행중

시민단체 “공식 보상안 필요”  
과기부 “사례 다양해 어렵다”  
불완전판매 보상 놓고 ‘팽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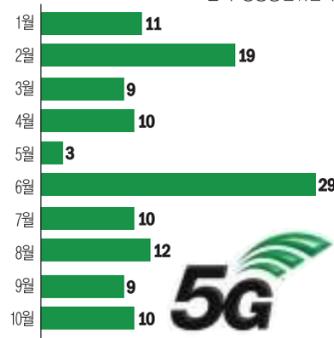
'아이폰12'가 국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5G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5G 통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30일 애플의 첫 5세대(5G) 휴대폰인 아이폰12가 국내에 출시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5G 시장으로 대거 넘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5G 시장의 대중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G 시장의 대중화와 무관하게 품질, 불완전판매 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건수는 5건이었으나 올해 1~10월은 누적 122건을 기록했다.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1건, 2월 19건, 3월 9건, 4월 10건, 5월 3건이었으나 6월에 29건으로 급증했다. 5월 KT 대리점이 5G 품질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올해 5G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단위: 건)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1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알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면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T는 “대리점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라며 공식 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접수된 122건의 5G 관련 분쟁 조정 중 81건은 완료됐고, 41건은 진행 중이다. 조정 완료는 조정안이 마련된 것까지를 의미한다. 조정안이 마련돼도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불 수락 결정이 난다. 분쟁 조정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통 3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

원회(조정위)는 5G 불통 관련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거부한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머지 3명은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 △SKT 10만 원 △KT 25만 원 △LG유플러스 25만 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통 3사는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소송에 들어가면 기존 분쟁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중단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소송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면 정부에서 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불완전판매의 사례들이 다양해 공식 보상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통위 분쟁조정센터나 소비자단체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말부터 5G 요금제 가입 시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고, 영일 단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도록 통신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KT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Ukraine)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링 신규 비즈니스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우(가운데) KT 글로벌사업본부장과 올라 부스리베트(스마트폰 화면)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장관이 화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여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KT

## “강원 폐광지역을 청년창업 메카로”

중진공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공모  
지원금 10억...81개사 신청 '경쟁률 27대 1'

강원도 폐광을 살리기 위해 청년 창업가 81명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지원금 10억 원이라는 통 큰 혜택이 이들에게 강원도 폐광지역을 청년창업의 산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동력을 불어넣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0년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공모에 총 81개사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폐광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진공·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운영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최종 3개사 선정에 81개사가 지원해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진공은 지난달 29일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향후 발표심사와 국민참여단 등을 활용한 결선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선정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및 투·융자 연계지원(중진공)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합지원 우대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한국광해관

리공단) △상생프로그램 연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기업은 1년 이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중에서 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원 폐광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진공은 지난 5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국가균형발전대상을 받았다. 또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학도 이사장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강원도 탄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시작한 프로젝트”라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수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빛내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 과기부, ISMS 인증 제도 개선...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 사업자·중소 특화 인증 심사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인증해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

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공히 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ISMS 인증항목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해 인증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도 해소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면세품 수출)

# ‘매출 추락’ 면세업, 내수판매·3자 반송 연장에도 ‘한숨’

## 약발 안 먹히는 정부 지원책

정부의 지원책 연장 결정에 따라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였다. 제 3자 반송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허용됐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판로가 막힐 뻔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급한 불은 꺼졌지만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업계 “급한불은 끈는데...” =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운영 종료 예정됐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내수 판매)은 별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재고 물량을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계획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 수 있게 한 제도다.

제 3자 반송은 연말까지 허용한다. 제 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점이 입국이 힘들어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끝낸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면세품 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매 법인으로 등록된 중국 보따리상(파이공)은 한국 입국 없이도 현지에서 원하는 면세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제 3자 국외반송 허용에 따라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은 지난달 2일 기준 5865억 원이다. 건수로 보면 1305건의 비대면 거래가 성사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급한 불은 꺼졌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책으로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이 거론된다.

특허수수료란 관세청의 특허 업무 관리에 대한 행정 수수료 개념이다.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 중 보따리상 반발 우려

수입처, 도매 법인 아닌 개인 명시 현지 부과 세금 부담으로 작용

## 업계 “특허수수료 감면해야”

영업의 아닌 매출로 수수료 산정 수익성 악화에도 수백억대 지출

700억 원 이상을 납부한 바 있다.

이외에 관광비행(관광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 착륙하는 비행) 상품에 대한 면세점 소평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허수수료 지원책도 필요” =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제 3자 반송의 주고객은 중국 보따리상인데, 절세에 민감한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린다”며 “관세청이 말하는 대안대로라면 기존 도매 법인으로 기록됐던 수입처가 개인으로 명시되는데, 현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보따리상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부터 내수진작을 이유로 보따리상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부과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파이공 반발이



예상된다고 정책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문제점으로 꼽는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이 업계 부담을 늘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밀어내고, 중국 파이공에 대한 판매로 매출이 유지되는 측면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예년처럼 면세점 성장세가 이어졌다면 모를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감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지원이 당분간 쉽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관세법 제176조의2(특례보세구역의 특례) 4항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중략)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재고로 남아 내수판매가 허용된 면세품의 경우 일부 인기 명품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처치 불가’인 상황이다.

◇면세점 업황 열대야나뽀뽀=코로나19 타격으로 올해 들어 면세점 업계의 보릿고개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의 활약에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슈가 해결돼 하늘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이상 불확실성의 안개는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손실이 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8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고, 순손실도 285억 원에 달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68.2% 증가했고 영업 손실 규모도 축소돼 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면세점을 운영하는 ‘TR’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7710억 원, 1085억 원으로 각각 42%, 21% 감소했다.

면세점협회가 집계한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48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미끄러진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던 4월의 9867억 원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라고 하지만, 내국인 매출은 지난해 9월 3151억 원에서 올해 9월에는 431억 원으로 86% 미끄러졌다.

그나마 면세점 매출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이다. 이들의 9월 면세 매출은 1조4409억 원으로 지난해 9월(1조9270억 원)의 75%까지 회복했다. 다만 같은 기간 면세품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17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푹 떨어졌는데, 이는 법인형 파이공이 외국인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행히 관세청이 제3자 반송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중국 파이공 주도의 외국인 매출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제 3자 반송 제도의 내년도 연장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문제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3분기 재고 확보를 위한 방안 파이공 수수료 매출과 객단가가 급등했지만, 4분기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관건은 해외여행 재개 시점”이라고 봤다.

남주현 기자 jooh@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이마트 ‘베타후레쉬 절임배추’ 사전예약

### 쿠폰 적용 등 최대 30% 할인

본격적인 김장철을 한 달 앞두고 이마트가 처음으로 프리미엄 배추인 ‘베타후레쉬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프리미엄 배추인 ‘피코크 베타후레쉬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은 11월 23일~12월 16일 사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희망 배송일을 지정하고, 절임배추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본격적인 김장철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우선 이마트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피코크 베타후레쉬 절임배추(20kg, 8~10포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정상이 3만 7300원에서 10% 할인된 3만 3570원에 판매한다. 2개 이상 구매 고객은 20% 할인된 2만 984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마트 앱을 통해 절임배추 사전예약 쿠폰을 발행받은 고객에게는(2000명 한정) 추가 10% 할인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정상이에서 30% 할인된 20kg(8~10포기)당 2만 611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베타후레쉬’ 배추는 지난 2014년 이마트와 종자회사 팜한농, 지역 농가가 협업하여 개발한 상품으로, 쌈용 알배기 배추로 출시 후 큰 성공을 거두자 2016년 김장용 배추로 개발해 판매해 온 상품이다. 베타후레쉬 배추는 노화방지와 비타민A 생성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일반 배추 대비 최대 140배나 많으며, 배추 뿌리와 하단 부분이 주황색을 띠는 것이 특



징이다.

실제 지난해 김장철 3주 판매 물량으로 준비했던 베타후레쉬 배추 4만 망(12만 포기)이 판매 1주일만에 조기 매진됐으며, 전년 대비 244% 가량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2019년 김장철 전체 배추 판매 물량 중 약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마트는 올해 베타후레쉬 배추 물량을 절임배추 사전예약 4만 망, 김장철 원물 4만 망 판매로 총 8만 망을 기획, 지난해보다 물량을 2배 늘린다.

이마트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가격이 크게 증가했던 배추 시세가 내려가며 김장철 배추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 배추(상품, 10kg 기준) 도매 가격은 6100원으로, 작년보다 49.4%, 평년보다도 20% 가량 낮은 수준이다.

확대한 이마트 채소팀장은 “이마트만의 차별화 운영 품종인 베타후레쉬 절임배추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김장 준비를 도울 수 있게 기획했다”며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김장 시즌까지 다양한 김장 행사를 준비해 김장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코로나에 의류관리기 ‘好好’

### 위생 불안에 살균 가전 인기 전년보다 누적 판매 26%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10월 결혼, 이사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전양판 업계에 의류관리기가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품의 살균 기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으나, 위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틈새시장’으로 평가됐던 의류관리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당당히 가전제품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의류관리기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8년 30만 대 수준이었던 이 시장은 지난해 45만 대 규모까지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60만 대 수준의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50%씩 성장한다는 얘기다.

1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의류관리기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0% 늘었다. 롯데하이마트에서도 올해 10월까지 의류관리기 누적 매출이 전년보다 43% 늘었다.

전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 가전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며 “의류관리기는 세탁이 힘든 코트나 패딩 등 다양한 의류보관이 가능하고 냄새와 미세먼지, 세균 등을 제거할 수 있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청정가전’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류관리기 시장의 키워드는 대형화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LG전자의 대용량 제품인 ‘트롬 스타일러 플러스’(사진)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0%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단위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서도 가전양판점 업계는 3분기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렌드가 계속되며 대형가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 매출액은 1조391억 원, 영업이익 47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4%, 영업이익은 41.02% 늘어난 수치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도 재택근무 증가와 홈레저 확산 등으로 집콕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4분기에도 대부분의 가전 수요가 호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신세계인터내셔널 온라인몰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돌파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 자체 온라인몰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의 연간 누적 매출이 올해 매출 목표인 1000억 원을 조기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1000억 원 돌파는 온라인몰 론칭 4년만에 이룬 성과다. 1000억 원 조기 달성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에스아이빌리지의 연 매출을 1400억 원까지 기대하고 있다.

2016년 9월 출범한 에스아이빌리지는 당시 27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매년 두 배가량 증가했다. 4년 만에 37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이다.

에스아이빌리지는 럭셔리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이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에스아이빌리지는 병행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패션몰과 달리 정식 판권을 바탕으로 수입된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르마니, 브루넬로 쿠치넬리, 메종 마르제엘라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바이레도, 딥티크, 산타마리아 노벨라 같은 뷰티 브랜드까지 약 70여개의 고가 브랜드를 판매한다.

특히, 에스아이빌리지는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재고 면세품을 발매하게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보테가베네타,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입생로망 등 인기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는데, 판매 첫날 전체 물량의 93%가 품절된 바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리빙 브랜드와 고가의 미술품, 음향 가전, 펫용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한 것도 에스아이빌리지의 강점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코로나 쇼크' 이겨냈다... 상장사 절반 '깜짝 실적'

62개사 영업익 28% 늘어... 36곳이 컨센서스 웃도는 성적 LGD, 시장 전망치보다 118% 증가... 7분기 만에 흑자전환 OCI 79%·현대로템 70% ↑ ... KB·하나금융지주도 호실적

삼성전자가 3분기에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깜짝 실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상장사 상장사가 코로나 19에 따른 쇼크에 벗어나 지난해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기업,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선전한 덕분에 분석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증권사들이 기업 실적 전망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해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2개의 영업이익 합계는 25조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9조5679억원 보다 28.24%늘어난 것이다. 순이익은 17조 8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5711억원

보다 22.57% 늘었다.

62개사 중 58%에 달하는 36개사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추정치 대비 괴리율은 평균 27.8%에 달했다.

전망치 대비 잠정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였다. LG디스플레이는 실적 발표 전 증권가에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754억 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16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치 대비 118%가 증가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근무 등이 늘면서 TV, 모니터 등 전자제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OCI도 추정치보다 78.9%가 많은 18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냈다. 8분기만에 흑

3분기 코스피 주요 상장사 실적 괴리율 (FRS연결기준)

기업명	2020년 3분기 잠정치(억 원)			추정치 대비 괴리율(%)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LG디스플레이	67,376	1,644	111	-1.3	118.0	48.6
OCI	4,680	181	61	-8.5	78.9	흑자전환
현대로템	6,932	311	46	5.0	70.2	30.6
휴비츠	195	40	34	15.6	70.1	64.1
NH투자증권	-	3,537	2,396	-	48.5	48.4
POSCO	142,612	6,667	5,140	-0.7	39.4	75.5
HDC현대산업개발	8,125	1,326	-749	-6.1	37.7	적자전환
GS홈쇼핑	2,952	379	324	-1.0	37.2	-
아모레G	12,086	610	70	-3.3	35.3	-81.2
오스템임플란트	1,650	237	467	-0.8	32.6	312.9

\* 컨센서스는 추정기관 수 3곳 이상 \* 출처: 에프앤가이드

자 전환이다.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수요가 증가한 데다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GCL 공장 화재에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실적이 급증했다.

적자에 시달리던 현대로템도 3분기 3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놓으며 추정치를 70.2%나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

포스코(39.4%), 고려아연(29.1%), 현대제철(11.3%) 등 철강·금속 업종 종목들

은 상장사 중 추정치보다 36.4%나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건설(-18.8%), 삼성물산(-10.8%) 등 건설사들도 시장 추정치를 밑돌았다. S-Oil도 정유업황 부진이 지속하면서 흑자 기대가 무너지고 93억 원 적자를 보였다.

같은 업종 사이에서도 실적 온도 차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GS건설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현대건설은 쇼크를 맞았고, IT·전자업종이 선전한 가운데 통신장비업체와 일부 소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3분기도 기업 실적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반도체, 유틸리티,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이 시장 전반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1년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하게 이뤄지는 화학, 자동차, IT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불확실성 커진 증시... 돈보이는 고배당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저항선은 좀처럼 뚫리지 않고, 오히려 바깥변수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코스피 22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동학개미'가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주가는 미끄러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주가와 낮은 금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투자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작년 우리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2.3%였다. 이유가 있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유도한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과 지주회사 증가로 배당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뀐 것이 배당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같은 장세에서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한다. 고배당 주식은 주가가 오를 때보다 소강상태에 있을 때 더 주목받는다. 상승 시기에는 배당이 주가 상승률

### 코스피 고배당50 구성종목 지수 시가총액 상위 회사 10곳

회사명	비중	지수시가 총액(억 원)
대신증권	3.84%	4조9122
태림포장	3.55%	4조5467
한국자산신탁	3.41%	4조3655
DGB금융지주	3.26%	4조1741
하나금융지주	2.96%	3조7887
현대차증권	2.88%	3조6877
효성	2.80%	3조5899
BNK금융지주	2.78%	3조5563
AJ네트웍스	2.77%	3조5491
DB금융투자	2.76%	3조5385

\* 10월 30일 기준 \* 출처: 한국은행

### '고배당 50지수' 배당수익률 5.53%... 코스피 3배 웃돌아 절반이 배당수익 높은 금융업

보다 낮지만 주가가 나빠지면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배당수익률은 5.53%였다. 코스피 배당수익률

1.82%를 세 배 웃돈다.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별 비중으로 보면, 배당수익이 높은 금융업이 57.04%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이어 서비업(10.69%), 화학(5.89%), 운수장비(4.11%), 기타제조(3.76%), 종이목재(3.55%), 철강금속(3.02%), 비금속광물(2.41%), 전기전자(2.35%), 기타(7.16%) 등이다.

구성종목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로 따지면 대신증권이 3.84%를 차지해 가장 높다. 이어 태림포장(3.55%), 한국자산신탁(3.41%), DGB금융지주(3.26%), 하나금융지주(2.96%), 현대차증권(2.88%), 효성(2.80%), BNK금융지주(2.78%), AJ네트웍스(2.77%)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배당주 주자는 저성장 국면이거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주식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 유리한 전략으로 통한다"며 "올해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 상승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 은행들 '코코본드' 발행 붐... 왜

### 올들어 4조1500억... 지난해 2배 대출 부실화 대비 선제 대응 나서

국내은행들이 건전성 악화 우려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앞다퉀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 은행계 금융지주가 발행한 코코본드는 4조1500억 원이다. 2019년 발행액 2조 5200억 원을 두 배 가까이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9월 DGB금융(500억 원), 신한금융(4500억 원)에 이어 10월 KB금융(5000억 원), 우리금융(2000억 원)이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했다.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서 금융지주들은 기존 계획보다 발행 규모를 늘렸다. 3000억 원을 모집하려던 KB금융은 8540억 원 가량의 자금이 몰리자 50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했다. 우리금융도 최초 신고금액(1500억 원)의 3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급격히 높아진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8만4877곳 중 36.6%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전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전년(35.2%)보다 1.4%포인트(5388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다.

코코본드란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후순위 채권을 말한다.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다.

코코본드는 채권 형태지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특히 바젤III가 국내에 도입된 2013년부터 국내 은행들은 코코본드 발행이나 증자를 통해 자본비율을 좋게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꼭 바젤III가 아니어도 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대거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 한화투자증권 "평생 돈 공부, 읽으면 돈이 보여요"

### 블로그 인기 콘텐츠 엮어 책 출간 생애주기별 금융지식 등 4권 구성

한화투자증권이 출간한 도서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나눠 보는 평생 돈 공부 시리즈'가 화제다.

이 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콘텐츠를 골라 엮어 '금융을 알면 돈이 보인다' 시리즈를 엮어 만든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해당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선보이며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평생 돈 공부' 시리즈는 생애주기별로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과 재테크 노하우를 제공한다. 총 네 권으로 구성됐으며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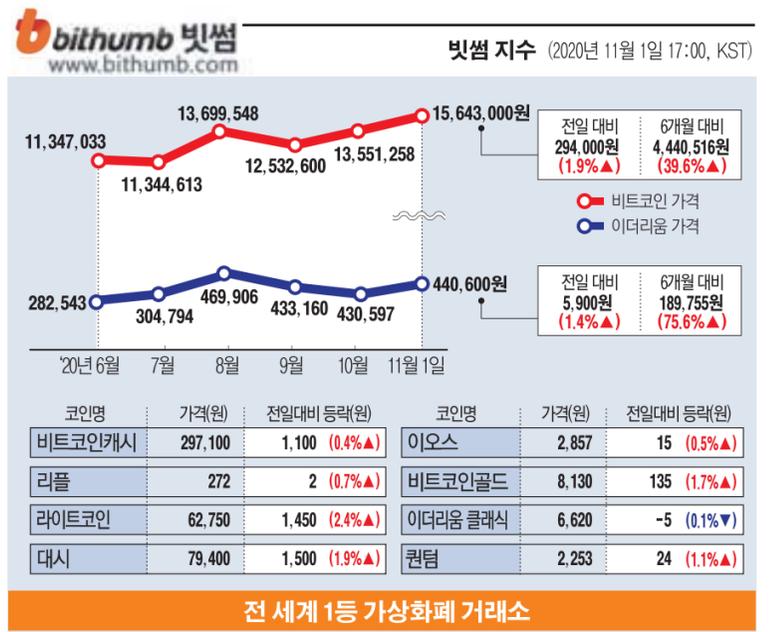


책은 미성년 자녀, 사회 초년생, 월급생활자, 퇴사준비 등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18세 이전에 알아둬야 할 생애 첫 돈 공부'는 3세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나이별로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소개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돈 공부'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금융 지식, 현명한 월급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돈을 모으고 불려야 하는 월급생활자를 위한 돈 공부'는 1인 생활자, 맞벌이 부부 등 상황별로 월급생활자가 쉽고 실속 있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퇴사준비를 위한 'Second life(두 번째 삶)를 위한 창업, 퇴사 준비 돈 공부'는 부업과 월급 외 고정 수입을 만들 방법, 퇴사 전 체크해야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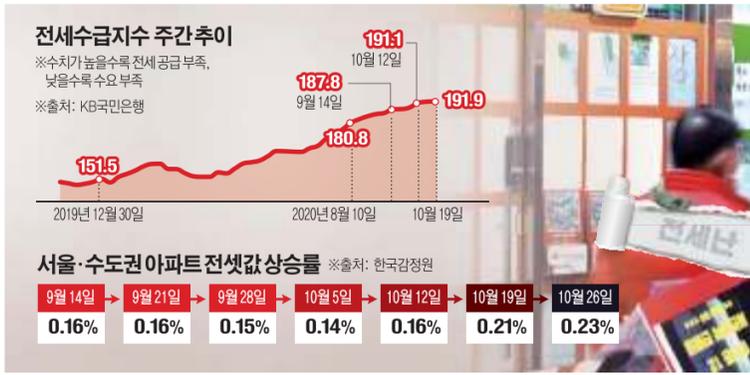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한중석 상무는 "이 책이 많은 이들의 금융 고민을 해결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과 재테크 노하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지난달 전국 191.1)

# “전세 없어요”... 전세수급지수 19년 만에 최고

서울 191.8... 전세공급 5년새 최악 8월 임대차보호법後 물량부족 심각 전세난 심화에 전셋값도 고공행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집 공급 부족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9월(187.0)보다 4.1포인트(P)

오른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8월부터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전세수급지수는 9월 187.0, 10월 191.1로 급증했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지난달(189.3)보다 2.4P 올랐다. 이는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은 194.0으로 2013년

9월(19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달(193.9)보다 1.8P 오른 195.7로 집계돼 KB국민은행이 경기 지역 통계를 따로 추출하기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도 지난달보다 5.8P 오른 194.1로 집계돼 2015년 5월 이후 전세 공급이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심화에 아파트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9일 기준)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64주 연속 상승했다. 2015년 11월 첫째 주 0.23%를 기록한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 주까지 0.08% 수준으로 오르면서 회복했지만 이번 주 0.1% 올랐다. 서울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폭이 컸

다. 송파구(0.19%)와 강남구(0.18%), 서초구(0.16%), 강동구(0.16%)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컸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계약 갱신 사례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도 꾸준하다”며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도 많지 않아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매매시장과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은 각종 규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사라진 결과”라며 “정부가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차법과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추가 분담금’ 내홍 턱 송파 헬리오시티 내년부터 아파트 매매 자유로워진다

추가 분담금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옛 가락시 영어파트)가 탈출구를 찾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 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시간이갈수록 소유자와 조합 부담은 커졌다. 헬리오시티수유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피하려면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등기 문제가 해

### 관리처분계획 변경 3수 만에 의결 이르면 내년 2월 소유권 보존 등기

건축조합은 지난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사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초과 분담금 부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조합이 추산한 추가 분담금은 총 684억8000만 원으로 조합원 6800여 명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 따라 나눠야 한다. 조합 측은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으로 490만~15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조합 집행부는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각 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담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에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라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

결이 안 되면 손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서도 해마다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시도한 건 이번이 삼수째다. 가락시영 조합은 올 1월과 7월에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했다. 올해 초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며 자체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는 그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회로 헬리오시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것이라 기대 조합 측이다. 가락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 이전에 끝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나 나올 수 있다”며 “매매를 노린다면 내년 이후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올 공인중개사시험 34만명 접수 ‘역대 최대’

30~40대 61% 차지... 응시율 66%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전국에서 치러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총 34만30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9만8227명)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 몰렸다.

올해 시험 접수자의 연령대는 40대 32%, 30대 29%로 3040세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시험에는 1972년생 개그맨 서경석 씨도 응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실제 시험 응시자는 22만7186명으로, 응시율은 약 66.2%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롯데건설 컨소시엄, 3381억 대구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3381억 원 규모의 대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대구 동구 효목1동 6구역 재건축 사업(조감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370명(참석자 349명) 중 311표를 얻어 득표율 89.1%를 기록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대구 동구 효목1동 6구역 재건축은 대구 동구 아양로 일대에 약 7만4997㎡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38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81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에 커튼월 등 차별화한 외관 설계를 적용하고 충분한 주차공간과 금호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풍부한 수주 실적과 검증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포스코건설, 7000억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7000억 원 규모의 경남 창원시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조감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전남 경남 창원시 삼남초등학교에서 열린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759명 가운데 655명의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사업 주간사로 신동아건설·중흥토건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일대 약 18만842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 완료 시 아파트 3219가구와 오피스텔 218실 규모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20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이름은 ‘창원 센트럴시티’로 착공은 2024년 3월, 준공은 2027년 5월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첫 주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94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20개 단지, 9488가구(일반분양9192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에선 ‘과천 르센토 데시앙’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세

개 단지가 3일 동시에 1순위 청약 받는다. 이들 단지는 청약일이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은 달라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31개 단지에선 청약 당락이 걸린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3a 공공분양주택’·고양시 토당동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래스’·수원시 마포동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등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위례신도시 A3-3a 공공분양주택은 9년 만에 나온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

준이어서 ‘도포 청약’ 기대감이 컸다.

정당계약을 받는 단지는 15곳이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 스위트’,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니 수성’ 오피스텔 등이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6개 단지는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자를 맞는다.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 아이파크 캐슬 4·5단지’·용인시 고림동 ‘용인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에 더 센트럴’, 대구 북구 침산동 ‘더샵 프리미엄’ 등이 6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2 (월)	발표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A3-3a(공공분양)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역세권평촌주택(민간임대) (~11/10)	
	계약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삼송A11-2(행복주택) (~11/6)		
				지축동	고양지축A4(행복주택) (~11/6)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A13(국민임대) (~11/5)		
			양평군	양평읍	양평캐미유스테이트 (~11/4)		
			화성시	남양읍	e편한세상남양뉴타운(B11)공공분양 (~11/5)		
	접수	인천	부평구	심정동	더샵부평(민간임대) (~11/6)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AA9(행복주택) (~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2차아파트 (~11/4) ♣	
			과천시	갈현동	과천르센토데시앙(S5) 1순위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 1순위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S1) 1순위		
11/3 (화)	발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 (~11/4) ♣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역동문곳모닝힐마크2차 1순위(당해지역)		
11/4 (수)	발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		
			시흥시	거목동	군자서희스타힐스		
	계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스윗시티B1(공공분양) (~11/6)		
				과천시	갈현동	과천르센토데시앙(S5) 2순위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 2순위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S1) 2순위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역동문곳모닝힐마크2차 1순위(당해지역)		
			하남시	감일동	감일푸르지오마르베르 1순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니수성 (~11/5) ♣	
	11/6 (금)	발표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4단지(국민임대) 고덕강일6단지(국민임대) 고덕강일7단지(국민임대) 고덕강일9단지(국민임대)	
				송파구	거여동	위례3BL(국민임대)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니수성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 ♣
11/7 (토)	계약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니수성 ♣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엘크루스타타워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1(정기전세) (~11/11)	
			경기	안양시	박달동	안양리버자이르네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 옵티머스 수뢰 의혹 또 ‘강상’ 출신

〈강경상고〉

뒷돈 받고 금융계 인사 연결 혐의  
檢, 전직 금감원 간부 소환 조사  
앞서 조사받은 동문과 입사 동기

검찰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로비 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강경상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만난 금융권 인물 대다수가 강경상고 라인이라는 본지 보도(지난 10월 12일) 이후 또 다시 강경상고 출신 금감원 간부가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물로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강경상고 동문들이 계속 언급되는 만큼 이들이 활동하는 강경여의도포럼이 사모펀드 시장에 깊게 개입했을 것이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대상에 올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금감원 간부 A 씨는 강경상고 출신으로 지난해 금감원에서 정년퇴임했다. A 씨는 지난 달 옵티머스로부터 수천 만 원의 뒷돈을 받고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직 금감원 간부 B 씨와 금감원 입사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역시 A 씨와 같은 강경상고 출신이다. 당시 B 씨가 김 대표에게 연결해준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임원 F 씨, 우리은행 부행장 D 씨, 한국경우펀딩 A 씨 모두 강경상고 동문들이었다. 업계에서는 강경상고 동문들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과거부터 막강했다는 것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강경여의도포럼이란 모임으로 동문 간 인맥을 다져왔다. 강경여의도포럼은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주된 참석자다.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여의도 모처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며 정치인을 초

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 강경상고 라인이 옵티머스 펀드 로비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경상고 출신들이 여의도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얘기는 유명하다”면서 “통상 상고 동문은 금융권에서도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강경상고의 경우 모임이 잦고 친분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올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A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로비스트 C 씨의 권유로 A 씨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배달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로비스트 C 씨의 경기도 시흥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북악산 북측 탐방로 개방

1968년 북한군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성곽이 1일 개방됐다. 돌레길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 북악산 성곽 주변을 이날 등산객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 KAI ‘한국형 헬기’ 정부 상대 126억 소송 패소 초과비용 청구… 대법 “민사 아닌 행정” 파기이송 후 뒤집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 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출연 1064억여 원, 업체투자 266억여 원 등 총 협약금액은 1330억여 원으로 정했다.

KAI는 개발과정에서 물가와 환율상승으로 126억여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정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정부가 초과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대법원은 KAI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해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파기이송했다.

파기이송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과비용 지급에 목적이 승인, 확정적 승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초과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부의 승인분에 한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하고 초과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1심은 이 협약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거나 신뢰 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이송 2심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지급을 위해 정부에 협약상 협약변경, 승인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검찰 ‘추미애 비판’ 거세… ‘검란 사태’ 재현되나

‘反추미애’ 글에 300여 명 동조  
검찰 내 조직적 저항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이후 작성자인 이 검사 관련 의혹을 다룬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이 ‘커밍아웃’이란 표현을 쓰자 검찰 내부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이냐”며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리자, 검사들이 실명으로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글을 올린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 사위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을 두고 조직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인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 어린 시선과 잦은 검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수주부장 등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건으로, 실명과 서명을 모으는 ‘연판장’이 돌기도 했다. 이는 검찰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대규모 항명사태로 평가된다.

반대의견도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은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도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라며 “저도 이 정도 인지 몰랐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박기영 기자 pgy@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나남**  
www.nanam.net nanam



# 고의 탈세 땀 징역... 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 생활 속 세금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

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 탈세 처벌은...

세무조사 받은 업체 대표 檢 고발·처벌 포탈세액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를 구속하거나 세금만 추징하는 때도 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받는 처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때는 조세범칙조

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엔...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 이용을

수도권에서는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 및 직매장)을 운영하는 이상해(가명) 사장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25일까지 낸 데 이어 월말에는 또다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 같

총괄납부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내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장단위 과세·주사업장총괄

### 제조공장 8월 환급 자금운영 어려움 과세 20일 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은 경우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내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이 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000만 원 발생한다. 만약 이 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주었다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000만 원만 환급받으면 된다.

### ■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 더 내거나 덜 냈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가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치밀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홍재철(가명)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해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만일, 홍 씨의 경우처럼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국세청은 세금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예가 중

### 2년 내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등 감면 법정신고 경과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중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

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 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포함)를 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경정해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제,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olf.co.kr



# “죽 마케팅 본질은 정성...따뜻한 마음 전하러 노력”

### ‘맞춤’ 서비스...손혜연 본아이에프 마케팅팀 대리

#### 주문 때 죽 농도·간 조절·포장 용기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 확산, 배달앱 제휴 거리 좁히기 나서

“죽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에게 정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한 고객 유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본죽이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정성’의 가치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본죽’과 ‘본죽&비빔밥 카페’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손혜연(사진) 마케팅팀 대리는 ‘죽’ 마케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속을 편하게 해주는 전통음식인 죽은 ‘케어푸드’로서 가치가 높은 편이다. 기력 회복이 필요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인 것이다. 죽을 찾는 고객은 보통 구매 목적이 확실한 편이어서 본죽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고객에게 본죽만의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메뉴 주문 시 죽 농도와 간 조절, 포장 용기 등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맞춤죽’ 서비스는 본죽의 대표적인 ‘정성 마케팅’이다. 손 대리는 “맞춤죽은 일반 간편죽 제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로, 본죽의 죽 전문가들이 18년간 현장에서 고객과 부딪히고 소통하며 얻은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최근 본죽은 변화와 도전의 기로에 서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본죽 또한 고객이 집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죽’과 ‘본죽&비빔밥 카페’는 자사 모바일 배달앱인 ‘본오더’와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배달앱에도 입점해 고객과의 거리를 좁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농수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10월 출시한 ‘6쪽마늘닭죽’은 서산시 마늘 농가를 살리기 위해 본아이에프와 서산시가 손잡고 기획한 메뉴다.

본죽은 최근 배우 오정세와 함께한 6쪽마늘닭죽 온라인 광고를 론칭하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손 대리는 “이번 광고는 한국인의 마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SNS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마늘 한 스푼 ‘짤’과 단군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마늘의 민족’ 콘셉트에 맞춰 제작됐다. 배우 오정세가 한국인의 마늘 사랑을 대변하는 마늘 왕자로 등장해 깊고 진한 마늘의 풍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본죽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춰 새로운 외식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본죽 브랜드가 지닌 본질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손 대리는 “코로나19 여파를 교훈 삼아 온라인을 통해 유입된 새 고객, 주소비중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은퇴경거서 우승컵 들어올린 이동국



1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 현대 이동국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1998년 K리그에 데뷔해 총 548경기를 뛰며 ‘228골 77도움’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동국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은퇴한다. 전북은 멀티골을 폭발한 조규성의 원맨쇼를 앞세워 대구를 2-0으로 꺾으며 ‘현대(家) 우승 전쟁’에서 울산 현대의 마지막 추격을 따돌리고 K리그 최초 4연패와 역대 최다 우승(8회)의 금자탑을 쌓았다. 전주/연합뉴스

## “무함마드 풍자 만평, 무슬림에겐 충격적일 수도”

### 잇단 테러에 한발 물러선 마크롱 “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 강조

에마누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선지자를 풍자한 샤를리에브도의 만평이 무슬림(이슬람교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한층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만평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며 “이것이 불리일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그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역시 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무함마드 만평은 프랑스 정부나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해당 만평을 프랑스 정부의 창작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는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 동영상 상을 아랍어 번역을 붙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이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이슬람권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발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프랑스와 이슬람권은 지난 16일 중학교 교사의 참수 테러가 발생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 “화성은 자유행성, 어느 정부도 주권 갖고 있지 않다”

###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관련 배포...“머스크의 화성 독립선언”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식민지 독립선언’과 다른 없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화성이 자유 행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이용 약관을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이 약관 9장에는 향후 화성 식민지에서 제공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나온다.

스페이스X는 이 약관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화성을 자유 행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구의 어떤 정부도 화

성 활동에 대한 권한이나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화성에 정착한 사람들이 선의로 제정한 자치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독립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는 지구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화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머스크의 구상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으로서 최초로 유인 우주선 왕복 여행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대 탑승 인원 100명의 ‘스타십’ 대형 우주선을 만들어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은평 기자 pepe@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에 이병훈 前 국토교통부 과장 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병훈(前) 국토교통부 과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 선임 이사는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동·서·남·해안 및 내륙개발기획단 기획관을 지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 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인사

- ◆교육부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최경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권민경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조동우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산업보건과장 손필훈
- ◆국토교통부 ◇국장급 신규 채용 △감사관 최용석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공간정책과장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권순욱 △유통정책과장 임태훈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서기관 배석희
-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사회적금융팀장 이진호
- ◆국민권익위원회 ◇과위공무원 신규 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심 ◇과위공무원 전보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 △국무조정실 과장 권석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원자력심사과장 최수진
- ◆관세청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강연호 △인사관리담당관 박현 △통관기획과장 한민 △수출입물류과장 김동수 △심사정책과장 하유정 △관세국경감시과장 문행용 △출산세관장 김정

- ◆한국기계연구원 ◇본부장급 △기획본부장 박주형 ◇실장급 △기계기술정책센터장 오승훈 △연구운영실장 유병민 △기술사업화실장 조성규 △기업지원실장 김재운 △기획예산실장 박수찬 △대외협력실장 오양외 △지역조직지원실장 이승모 △안전시설실장 신면우 △재무실장 김동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능평가실장 김대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 △정책연구실장 이유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급 △글로벌협력본부장 박삼규 ◇센터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안은영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장 이수정 ◇실장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지질신소재연구실장 서성만
- ◆대림그룹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장 이근모 ◇임원 신규 선임 △김영훈 △지경선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승진 △전무 황태수 △상무 주성태 △상무 허용 ◇신규 선임 △김명석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승진 △대표이사 부회장 배원복 ◇임원 신규 선임 △경영지원 김윤관 △ 김도현 △ 신동호 △ 정봉오 △ 임형덕 △ 어준 △전문위원 김광민 △ 이준호 [대림건설] ◇승진 △전무 조동운 ◇임원 신규 선임 △경영지원

- 김혁동 △전문위원 민문기 [대림에너지] ◇임원 신규 선임 △황양규 [대림에프엔씨] ◇승진 △전무 김영호 ◇임원 신규 선임 △이재태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임용 △해외사업실장 박용열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주간(사회재난) 김성모 △ 통합뉴스룸 주간(디지털뉴스) 이은정 △ 해설위원실장 정인석 △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3부장 홍성철 △ 보도기획부장 이경호 △ 통합뉴스룸(정치국제) 통일·외교부장 송현정 △ (경제) 산업과학부장 김태욱 △ (방송뉴스) 뉴스제작1부장 김진우 △ (디지털뉴스) 디지털뉴스제작부장 윤상 △ (보도영상) 영상편집부장 진만용 △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 이주형
- ◆매일경제신문 ◇부장 승진 △주간국 광고팀장 이성홍 ◇부장대우 승진 △월간국 러스맨 취재팀장 김병수 △광고국 관리부 이동훈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기획은 영본부장 성석호 △콘텐츠허브본부장 이로물로 △TV국장 류호찬 △보도국장 서종빈 △제작기술국장 이용현 △TV국 제작부장 최성욱 △라디오국 제작아나운서부장 박종인
- ◆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 “안녕, 본드~”... ‘원조 007’ 손 코너리, 90세 나이로 별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첩보 영화 ‘007 시리즈’의 원조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영국 배우 손 코너리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던 코너리는 체류하고 있던 연연방 국가인 대서양의 섬나라 바하마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코너리는 1930년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으며, 가톨릭 출신 공장 노동자 아버지와 신교를 믿는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1954년 단역 배우로 연기자 생활

을 시작했으며, 1962년 007시리즈의 첫 작품 ‘007 살인번호(Dr. No)’에서 1대 제임스 본드 역할에 발탁되면서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했다. 그는 007시리즈 가운데 7편의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했으며 이후 △오리엔트 특급살인(1974년) △장미의 이름(1986) △인터처블(1987년) △인디애나 존스:최후의 성전(1989년) △더록(1996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영화 출연은 2003년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성우 등을 맡기도 했다. 공식 은퇴를 알린 것은 2006년이었다.

수십 년 연기 생활을 하면서 미국 아카데미상, 2개의 영국의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상, 3개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부음

▲조옥진(전 서울 연동교회 권사) 씨 별세, 홍근(한국항공공교회 이사)·정(아주대병원 소아외과 과장)·경희(미국 거주)·주희(예원학교 교무부장) 씨 모친상, 김배경·이혜경 씨 시모상, 문영삼(세경산업 대표) 씨 장모상, 홍연화·선희·찬희(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 씨 조모상, 박승

훈(LG유플러스 책임역)·김현수(세창스포트 이사) 씨 장조모상, 홍지혜(펜코 대리) 씨 시조모상 =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2-2227-7580  
▲정선자 씨 별세, 김원동(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씨 모친상 = 1일, 분당세명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31-708-44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코로나19에도 호실적 보인 'GAFA'

GAFA의 실적 호조는 기업 경영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들은 사업 시작 이후 벌어들인 많은 수익을 배경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해왔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업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 다각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꾸준히 추진해야 코로나19 같은 위기 사태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고 불리는 미국의 4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 실적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분기에 일단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를 보였지만, 지난주 일제히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는 주력 사업 회복과 성장 분야 수익 확대도 호실적을 보였다.

2020년 3분기(7-9월) 중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61억7300만 달러(약 48조 3000억 원), 순이익은 59% 늘어난 112억 47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분기(4-6월) 중 사상 이래 처음으로 수익이 감소했으나 곧바로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력사업인 인터넷광고의 수요 회복으로 매출,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구글 관계자는 "전 지역, 거의 모든 업종에서 광고 사업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광고와 더불어 주력 분야로 꼽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

비 45% 늘어난 34억4400만 달러에 달해 업계 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중 애플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646억9800만 달러(약 67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125억 달러를 약간 넘어섰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의 확대도 태블릿 단말 '아이패드'와 개인용 컴퓨터 '맥'의 판매가 늘어 당초 순익 감소 예상을 뒤집고 6분기 연속 순익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제품별 매출을 보면 아이패드가 46% 늘어난 67억9700만 달러, 맥은 29% 늘어난 90억3200만 달러로 큰 폭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가을 신학기에 맞춘 캠페인 등이 주효했다. 팀 쿡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두 제품의 신장률은 경이적"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주로 떠오른 게임과 음악, 동영상 사업 등 서비스 부문도 크게 약진했다. 반면 주력 스마트폰 '아이폰'의 매출은 21% 감소한 264억4400만 달러에 그쳤다.

페이스북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14억700만 달러(약 22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판매에 활로를 찾는 기업의 광고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순이익도 29% 늘어난 78억4600만 달러에 달했다. 매출과 순이익의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페이스북은 매출의 99%를 인터넷 광고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매업과 음식점이 온라인에서의 판매와 영업활동에 주력하면서 온라인 광고가 증가한 것이다.

아마존은 3분기에 전년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63억3100만 달러(약 6조59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역시 분기별로 과거 최고 이익을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와 재택근무 장기화를 배경으로 주력사업인 온라인 판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다. 같은 기간 중 아마존의 매출은 37% 증가한 961억4500만 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92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은 GAFA의 실적 호조는 기업 경영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들은 사업 시작 이후

벌어들인 많은 수익을 배경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해왔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GAFA 중 유일한 제조업체인 애플은 음악과 게임을 포함한 서비스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들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양호한 영업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애플의 실적 호조는 한국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애플은 하드웨어 부문인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매출 실적을 올려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GAFA의 실적 호조는 본업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 다각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꾸준히 추진해야 코로나19 같은 위기 사태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를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기업 환경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사업 재편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난영의 과학 놀이터 과학 칼럼니스트

양자역학은 시간여행을 허락한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현실 세계에선 어떻게 모르지만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여행이 가능한데, 그 일례가 블랙홀이다. 중력장이 너무 강해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영역을 블랙홀이라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원리는 이런 블랙홀이 전체 중력 붕괴의 산물로서 자연에 수도 없이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일반상대성원리에서 중력장은 힘이 아닌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따라서 회전하는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장은 시공간을 극도로 비틀어서 소위 '닫힌 시간 곡선(closed time curve, CTC)'-혹은 '시간 성폐곡선'이라고도 불린다-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호킹을 비롯한 많은 물리학자들은 CTC를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로 여겼는데, 이유는 인과관계의 위반 때문이다. 흔히 '할아버지 패러독스(Grandfather Paradox)'라 불리는 이 사고 실험은 만일 시간 여행자가 자신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의 과거로 여행해서 자신의 조부를 살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태어날 수 없고 따라서 과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가정은 논리적 모순을 가져온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평행우주론(parallel universe)'이다. 할아버지가 죽은 우주와 살아 있는 우주가 나란히 존재할 수 있고 할아버지를 죽인 자신은 할아버지가 죽지 않은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가 되는 셈이다.

이 평행우주론의 강한 옹호론자면서 양자컴퓨터의 선구자이기도 한 옥스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도이치는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특성이 원인과 결과가 뒤엉키는 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 대신 양자 입자가 위의 곡선을 따라 시간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양자 입자는 1과 0의 혼합비가 각각 50퍼센트인 상태가 뒤집힌다고 해도 다시 말해 1이 0

이 되고 0이 1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두 값의 비율이 50대 50인 상태가 된다. 이로써 자기일관성의 원리(self-consistency) 또한 만족된다. 즉, 자기일관성을 만족하는 우주에서는 과거로 여행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모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다. 이런 도이치 모델은 2014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마틴 림바우어와 그의 동료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실에서 구현한 바 있고, 이로써 시간여행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때문이든 현재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든 누구나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이란 상상을 한번쯤 해보지만 아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호킹 박사의 말처럼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종이에만 존재하는 인공지능이었으나 이제는 실제 세계로 나온 블랙홀처럼 어느 미래에 당면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만일 내일이 그 미래라면 난 기꺼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던 과거 그 어느 날로 가고 싶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피에르 파올리니 명언 "삶이 진행되는 동안은 삶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기에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탈리아 영화감독. 그는 이탈리아 사회의 여러 모순을 일관된 파격성으로 영화에 담았다. 자신만의 시적 리얼리즘이라 명명한 예술방식은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대표작은 '오이디푸스 왕' '살로 소돔의 120일' '테오레마' 등. 그는 오늘 세상을 뒀다. 1922~1975.

☆ 고사성어 / 발본색원(拔本塞源)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아 버린다는 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단을 없애 버린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온다. "나에게 백부(伯父)가 계신 것은 마치 옷에 갓이 있는 것과 같다. 나무와 물에 근원이 있어야 하듯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임금이 있어야 한다. 백부께서 만약 갓을 찢어버리고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으며[拔本塞源], 오로지 지혜로움을 버린다면 비록 오랑캐들이라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사상식/잡흥핑(Job-Hopping) 즉 고액 연봉을 받으려거나 또는 커리어 개발을 위해 2~3년 단위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 전체적인 방향성과 커리어 플랜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조직에 대한 불만, 부적응 등의 이유로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 우리말 유래 / 오지랖 넓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고 나서 사람에게 하는 말. 오지랖은 옷의 앞자락. 앞자락이 넓으면 그만큼 다른 옷을 많이 덮게 되는 모양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성격에 빗대었다.

☆ 유머 / 다 듣고 있다 의사가 노인에게 신형 보청기를 사용해 보고 한 달 후 다시 오라 했다. 한 달 뒤 내원한 노인에게 의사가 "축하합니다. 가족도 좋아하시죠?"라고 묻자 노인의 대답. "자식들께겐 이야기 안 했지요. 그냥 대화 내용을 잘 듣고 있어요. 그동안 유언장을 세 번 고쳤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진산 금융부/jinsan@

익숙한 광경

의 인사 임명을 반대했다. 이것이 수십 년을 반복해온 금융권의 클리셰다. 노조나 시민단체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외부에서 내려오면 반대하고 나선다.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매번 똑같이 외칠 뿐 실체가 없는 얘기들

이다. 반복해서 똑같은 곳을 찌르니 비판의 날이 무덜뿔더러, 방어하는 방식도 쉬워진다. 이렇다 보니 서로 생산성 없는 논쟁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협회로서 관이나, 민간이냐보다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가 필요하다. 손익계산서에 필요한 항목은 많은데, 바깥에선 주야장천

관이나 민간이냐를 논하고 있다. 후보 면면마다 몸담은 곳이 다르고 집중했던 역할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이분법적 구분에선 이들 후보가 제대로 평가받을 리 만무하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창의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할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업계도 익숙한 영업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졌다. 비대해지는 빅테크, 핀테크 등과 견주어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데, 여전히 이곳은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가 뭐래도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수장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돼야 할까. 다음번 회장 인선에선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장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됨에 따라 늘 보던 현상이 반복된다. 임기 만료가 임박해지면 근처에 떠도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관료 출신이냐가 논란이 됐다가 회장 인선 절차가 완료되면 조용해진다. 임명된 후에는 각자 다른 통계에 잡힌다. 관료 출신이었다면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깜짝 인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협회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앞으로 관료 출신들이 자기 회장으로 채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관료 출신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and address.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천기누설

##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길어서 노여운 사람에게도, 짧아서 아쉬운 사람에게도 500여 일 후면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데, 문 대통령 잔여 임기에 대한 반응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예측이니 맞는 말이겠지만 잘 뜯어보면 의문부호가 달린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예비후보 지지율이 따로 노는 데다, 설문에 응하고도 지지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5%다. 어떤 이들은 부정평가가 더 높다는 이유로 '데드 크로스'를 부각하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이 41.1%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해도 이길 태세다. 차기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지지층을 승계하느냐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35%로 대통령 지지율과 꽤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대통령 부정평가와 2배 넘게 간격이 벌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좋아도 민주당은 싫다는 사람이 꽤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은 더 '극혐'이라는 유권자가 넘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럼 문 대통령의 지지를 업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면, 또는 반문을

앞세우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시너지가 날까 역효과를 부를까.

예비후보 지지율을 보면 여당 쪽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같다. 한때 50%까지 올라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17%로 주저앉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20%)를 달리고 있는데, 원동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승세를 탄 덕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 중 절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민주당 지지층 84%가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과 결합해 생각해 보면 여당 후보는 '누구'인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지도 모른다.

반면 야권은 복잡하다. 우선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의원(2%), 원희룡 제주도지사(1%)를 모두 합쳐도 겨우 10%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힘을 줄 수는 없다는 사람이 열에 여덟을 넘으니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지사를 빼더라도 사실상 7%가 전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지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다음 대선은 지난

총선을 능가하는 일방적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반대로 다음 대선에서 역대급 불거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재명+이낙연(20%+17%=37%)'이 민주당 지지율(35%)과는 거의 일치하지만 문 대통령(43%)에 못 미친다는 점, 그리고 실제 1위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지지자 없음(46%)'이라는 점이 근거다.

단순화시켜 보면 이렇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 대통령의 지지까지 얻으면 당선권인 40% 초중반대의 득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해머드릴을 들고 등장하면 콘크리트 벽 뒤에 숨은 부동층에 닿을 수 있다.

물론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권의 현 상황을 보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현재 거론되는 후보가 아닌 새 인물을 원한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당지지율로 봐도 무당층이 34%로 민주당 지지층을 위협한다는 점도 여당에 표를 몰아주던 6개월 전과는 차이가 크다.

굵직한 선거에서 막판에 등장한 깜짝 후보가 판을 뒤집는 모습은 그리 낯선 것도 아니다. 2002년 대선이 그러했고, 2011년 서울시장을 뽑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목격했다. 특정한 야당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은 없다. 그저 정치판 악동이 나타나 헛발질하는 여당이나 '똥볼' 차는 야당 모두 엉덩이를 걸어서 주길 바랄 뿐. whan@

## 사설

### 최악 전세난 임대차법 3개월, 해법 안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최악의 전세난이 그 결과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임대차보호법의 역풍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최대 상승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여름까지 안정돼 있다가 겨울부터 매주 0.10% 수준으로 오르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주간상승률이 0.20%대로 확대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이제는 지방까지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전세물량이 사라진 탓이 가장 크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9월(187.0)보다 4.1포인트(p) 높아졌다. 1~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 이 지표가 10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10월 수급지수는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다. 서울이 191.8, 수도권이 194.0을 기록했다. 물량 폭기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새로 집을 구하는 전세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혼란과 분쟁까지 속출하고 있다. 전세 깬 집의 매수자들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흥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대책없이 밀어붙인 정책이 전세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최악의 서민 주거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세시장 안정 카드로 최근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도 실효성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 우려만 커지고 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임대차법과 주택정비사업 규제도 공급은 줄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대책이 급하다고 한다. 막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어려운 임대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꿀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그런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 노이즈 캔슬링? 버추얼 쇼케이스?

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집단인 젊은 층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알파벳' 머리글자를 덧붙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누군가 나서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일들을 "X세대라고 부르자"라며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일반화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업의 홍보와 판매전략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바꿔 가는 주체가 된 셈입니다. 어느 언어권에서나 방언은 존재합니다. 하나의 언어권이지만 물리적 단절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단절로 인한 언어 차이보다, 세대 변화에 따른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광고와 판매 전략은 언제나 주소비를 겨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정 소비층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에 주력하고,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판매 전략에 활용합니다. 결국, 세대마다 소비재가 달라지고, 언어와 유행의 차이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만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좋은 반응을 얻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독일 고급 자동차 회사

BMW는 한국 신차 발표회에 맞춰 책임 디자이너를 함께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그는 복잡한 자동차 공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친절함도 담았습니다. 주인공은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추앙받았던 BMW 출신의 크리스 벅글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정도로, 신개념 버추얼 신차 쇼케이스는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현실을 가미한 신제품 출시행사' 정도로 바뀌어 됩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함을 배워야 하니까요.

만약 '파라볼릭 라인(Parabolic Line)'의 측면부, 울트라마린 블루와 둔 베이지 투톤의 내장, 그리고 마테호른 화이트 컬러로 외장이 칠해져 있는 차량의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소비자가 대다수라면 친절함 제품 설명일 겁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고 단어와 색깔을 맞춰봐야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네요.

junior@

### 미리 보는 한 주 소비자물가 안정·국제수지 흑자 행진 전망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는 많지 않다. 3일(화) 나오는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와 5일(목)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치)가 관심을 끄는 정도다.

통계청이 3일 공개하는 10월 소비자물가 통계는 앞서 9월에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한 통계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월엔 긴 장마로 인해 신선식품지수가 2001년 2월 이후 최대폭인 21.5%나 오르며 1.0%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은 계절적·기후적 요인이 줄어들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됐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한은이 5일 내놓은 9월 국제수지는 5월 이후 계속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경상수지는 65억7000만 달러(약 7조6113억 원) 흑자를 보였다. 특히 상품수지 흑자가 작년 8월보다 23억8000만 달러 많은 70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9월 수출 실적도 7개월 만에 반등하며 7.7% 증가를 기록한 만큼 국제수지 또한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주식 양도세 강화와 1주택 재산세 완화 등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자는 정부 방침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도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보는 여당과 6억 원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4~5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합정책질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입장 조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해외 이벤트는 두말할 것 없이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극을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다. 아울러 우편투표 개표 지연 및 선거 불복까지 겹쳐 선거 결과가 예전처럼 곧바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리=홍석동 여론조사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SAMSUNG

**반가워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드디어 이사하는 날  
집이 어떤 구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공간에 딱 맞는  
그랑데<sup>SI</sup>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S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sup>SI</sup>**



##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sup>SI</sup>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통큰혜택 2020.11.1 - 2020.11.30

삼성 그랑데<sup>SI</sup> [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동시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상당 혜택)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sup>SI</sup>)은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블랙(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시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시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